



위 QR코드를 스캔하면
 <아주 좋은 날> 66호 표지를
 장식한 릴리의 작품을
 모션 그래픽과 ASMR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날



INTUITION

2 ESSAY
각자도생의 시대 - AI 이후의 세계

4 GALLERY
릴리 LILY



6 THIS SCENE
일상을 지키는 단단한 취향의 힘,
영화 <퍼펙트 데이즈>

10 PRISM
K-CRAFT
바람을 담은 지혜, 선자
THE CHAIR
단순할수록 선풍해지는 품격,
바르셀로나 체어
FESTIVAL
벚꽃 아래 하나미의 순간
TASTE
감각의 시대 식감과잉 디저트

18 & THE CITY
큐가든, 도심 속 일상의 안식처

INSIGHT

22 INTERVIEW
지속의 선수, 이상호

26 GETAWAY
도시를 살리는 공원
벤짜끼띠 포레스트 파크



30 FUTURE WORLD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행복할까?

34 UNKNOWN WORLD
고독한 결정 -
삼국지에서 배우는 리더의
다섯 가지 함정

AJU

38 AJU INSIDE
도시를 경험하는 호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42 AJU FOCUS
Share, Split, Sustain
나눔으로 확장되는 아주의 가치



46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52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Prologue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삶을 향한 성찰

지금 우리는 '변화'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의 방식과 관계의 구조, 시간을 감각하는 방식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온 기준들이 빠르게 이동하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일상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전환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체감되기보다, 매일의 선택과 반복되는 회복의 과정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날>은 이러한 흐름을 단순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이동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바라보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어떻게 다시 구성해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장면들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성찰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며,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Front Cover
Small satisfaction 415
Now, This Moment Shines
the Brightest
Acrylic gouache on canvas,
162.2 x 97cm, 2025

Cover Artist 릴리 Lily

릴리는 배재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회화 작가로 자연과 일상에서 포착한 미세한 감각과 정서의 흔적을 회화적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순간의 감정, 사소한 움직임, 기억의 잔상을 섬세한 색채와 작은 형상의 축적으로 화면에 담아내며, 감각과 내면이 만나는 지점을 조용히 탐구한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한 풍경의 재현을 넘어, 삶의 찰나들이 어떻게 개인의 기억과 성찰로 이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사유하게 한다. 자연의 회복과 일상의 관찰에서 출발한 이미지들은 '리틀 포레스트'처럼 확장된 화면 속에서 기억과 감정이 교차하는 하나의 숲을 이룬다. 산불 이후 다시 살아난 자연과 교묘라의 작은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은 작은 이미지들이 모여 형성되는 감각의 풍경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풍경과 마주하게 한다.

각자도생의 시대 - AI 이후의 세계

글. 한다혜

2026년, AI 대전환을 맞이하며

지난 수년간 우리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읽어왔다.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경제였기 때문이다. 경기가 얼어붙으면 사람들은 가성비를 찾아 나섰고,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현재에 집중했다. 경제는 늘 트렌드를 움직이는 가장 직접적인 동인이었다.

그러나 2026년 봄, 우리는 경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 서 있다. 국제 정세, 관세, 금리, 전쟁, 기후 위기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 등장했다. 바로 AI다. 이제 AI를 빼고 트렌드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업무 방식과 라이프스타일, 나아가 가치관까지 재구성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AI 대전환은 단지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껏 기대어 왔던 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조직'이었다.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기획·분석·창작의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한 AI는 사람들에게 존재론적 불안감을 선사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인공지능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을까?"라는 원초적 공포였다. 더 이상 기존의 질서에 기대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각자의 역량과 경쟁력을 점검하며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자꾸만 벌어지는 격차 역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제는 지식의 격차를 넘어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는 점점 커져만 가고, 기술의 패권을 가진 국가와 종속된 국가 사이의 간격 역시 빠르게 벌어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 간에는 자국우선주의가, 개인 간에는 각자의 생존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

각자도생의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정서는 '불안'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불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소비자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이 단순히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자신만의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외부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26년에 나타나는 주요 트렌드 키워드는 '통제권의 회복'과 결을 같이 한다.

미래를 미리 살아보는 사람들, 레디코어

그 대표적인 트렌드가 바로 '레디코어'다. 레디코어란 준비된 (Ready) 상태가 삶의 핵심(Core)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의미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기본적인 대비와 예행연습을 통해 미래의 경험을 현재로 소환해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진 것이다. 레디코어 트렌드는 일상 곳곳에서 관찰된다. 첫째, 사전 계획을 성실히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엑셀이나 노선을 통해 일정을 정리하고, 예약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자신의 삶을 시각화한다.

둘째, 인생의 예행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AI 면접관과 함께 실전 같은 압박 면접을 미리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이나 출산 역시 미리 준비하고 시뮬레이션한다.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설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늘 선제적 학습을 중시한다. 취업·이직·창업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자격증을 미리 준비한다. 심지어 부동산 스터디, 투자 스터디 등에도 거리낌 없이 투자하며, 노후 자금의 조기 준비 역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에게 새로운 생존 방식이 등장한 셈이다.

민을 건 내 건강뿐, 건강의 자산화

다음으로 통제할 영역은 '건강'이다. 특히 사회가 초합리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외로워질수록 민을 것은 자신의 건강뿐이다. 물론 건강이 중요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건강 관리에 쏟아지는 관심은 예사롭지 않다. 일례로 2030세대는 혈당 관리를 고려해 식단을 짜고, 항노화 케어를 위한 화장품을 고른다. 운동이 일상화되면서 한때 '등산복 패션'으로 불렸던 기능성 의류는 힙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건강지능 시대의 건강 관리는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과학적 관리'다. 인체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단·운동·멘탈 등 자기 관리를 실천한다. 식사 직후 혈당을 지속적으로 측정해 건강한 식사법을 실천하기도 하고, 달기기를 할 때도 스마트 워치로 자신의 심박수를 꾸준히 확인한다. 더 나아가 노화·체형·성장 등 관리가 필요한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동안 성형, 비만 치료 주사, 모발 이식,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 등이 대표적 예다. 마지막으로 신체 전반의 건강뿐 아니라 생활 및 환경적 요소까지 고려해, 건강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관리하는 '총체적 관리'로 확장한다.

이처럼 오늘날 건강은 전 국민의 화두가 되었다. 유튜브에서는 지식·교양·라이프스타일 채널은 물론 재테크 채널에서도 '건강'을 주제로 한 영상이 빠지지 않는다. 건강 관리는 라이프스타일이자 필수 교양이며,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제 건강은 있으면 좋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각자도생 시대를 버티게 하는 필요 조건이 되었다.

진짜의 가치가 부상한다, 근본이즘

마지막으로, AI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을 척척 생성해 내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변치 않는 '근본'을 향한 목마름을 드러내고 있다. 긴 시간을 견뎌 온 문화적·역사적

아우라를 지닌 전통이 재조명되고, 세상에 처음 등장했던 원조를 숭상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많은 핫플레이스 대신 고궁을 즐기는 젊은 세대들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행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은 고전과 클래식을 선호하고, 디지털을 넘어 아날로그 본연의 낭만을 추구하는 모습 역시 두드러진다.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시대에 직접 손 글씨를 써보는 '필사'에 빠지거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음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LP 바를 찾는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소비자들은 변치 않는 고전적인 가치와 믿을 수 있는 원조를 통해 안정감과 만족을 얻고자 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근본이즘'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다.

근본이즘은 AI 사회가 보여주는 최신성·복제성·효율성에 대한 반발이자, 가상이 현실을 대체하는 시대에 본질을 다시 묻는 태도다. 즉, 단순한 복고 유행이 아니라 디지털 과잉 시대에 균형을 회복하려는 욕구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펀더멘탈이 갖춰져야 가치도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진짜의 가치와 변치 않는 기준은 '신뢰'라는 자산이 기본이 된다. 모든 것이 투명해진 디지털 시대에는 '신뢰'는 필수 요소이다.

2026년의 주요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통제하려는 레디코어, 자신의 몸을 자산처럼 관리하는 건강지능, 변치 않는 기준을 붙드는 근본이즘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이는 불안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며, 반짝하는 일시적 유행이라기보다 AI가 만들어 낸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 따라서 각자도생의 시대를 인간과 기술의 대립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재정의되고, 새로운 균형과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인간에게 남길지 결정하는 일은 결국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다혜는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원으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공저자다.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소비자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SK·LG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트렌드 기반의 미래 전략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서 소비자행태론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K뷰티 트렌드>, <스물하나, 서른아홉>, <대한민국 외식업 트렌드> 시리즈를 공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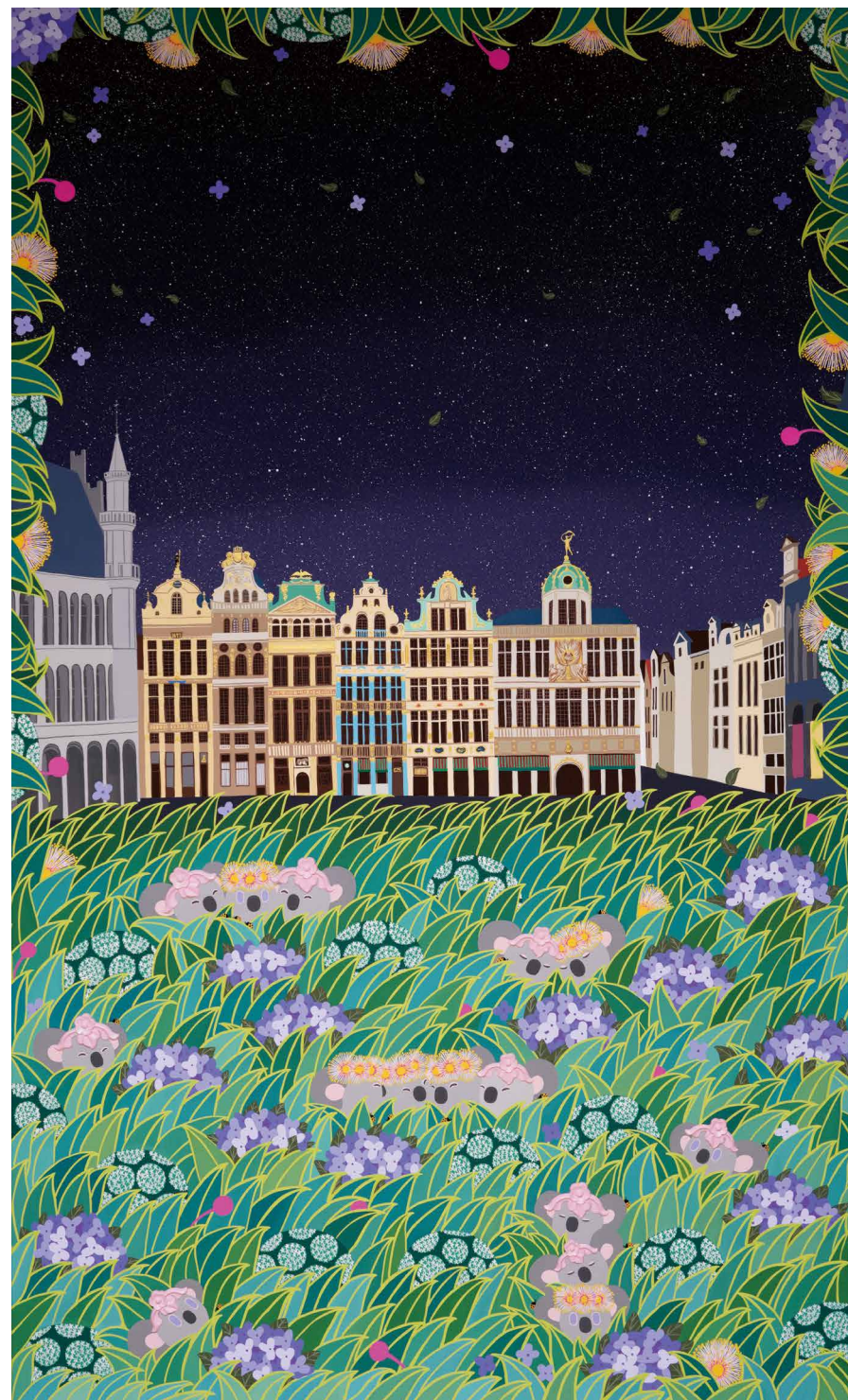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Small Satisfaction 163_Grand Place
그랑플라스
Acrylic gouache on canvas, 162.2×97c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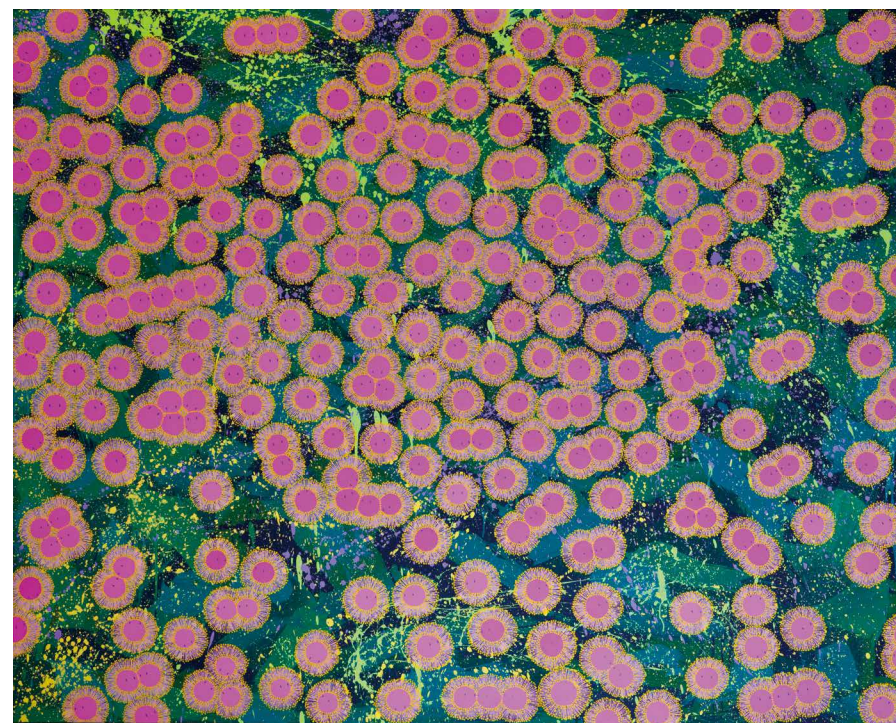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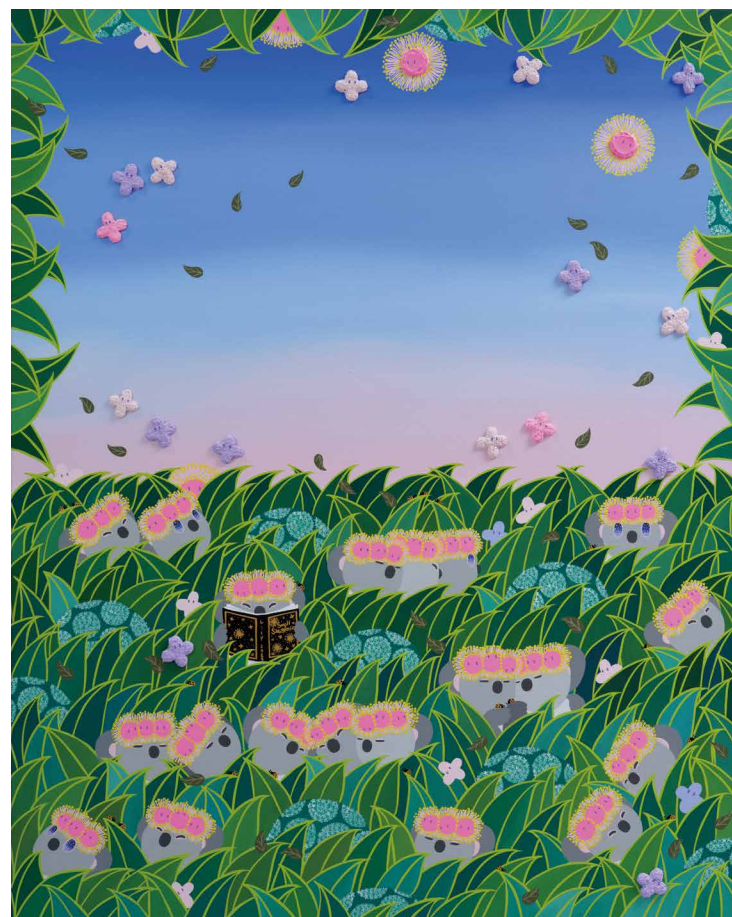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1 Small satisfaction 360_Eternal in the Moment-Time's Beautiful Veil
순간 속의 영원-아름답게 덮인 시간
Acrylic gouache on canvas, 162.2×130.3cm, 2024

2 Small satisfaction 458_Over the Rainbow
오버 더 레인보우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90.9×72.7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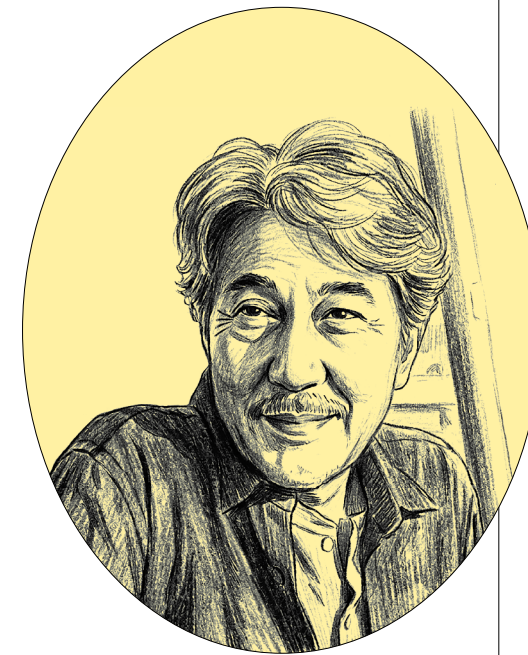
일상을 지키는
단단한
취향의 힘,
영화 <퍼펙트 데이즈>

글. 김교석

Perfect
Days

INTUITION - THIS SCENE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변화와 속도에 익숙해진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마음가짐의 힘을 그렸다. 빔 벤더스Wim Wenders 감독은 도쿄의 공중화장실 청소부 히라야마의 반복되는 하루를 따라가며,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세계, 나아가 삶의 목표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는 성취나 성장의 서사 대신, 취향과 루틴으로 가꾼 일상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한 편의 명상이다.



2017년 나는 <아무튼 계속>이란 책을 썼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란 부제가 설명하듯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항상성과 루틴 등에 관해 쓴 에세이다. 시시콜콜하고 어쩌면 심심할 이야기들은 다행스럽게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독자들로 인해 일상 속 반복의 가치나 취향, 루틴의 효용 등으로 해석되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때와 같은 회사를 다니며 같은 시간에 수영하고, 같은 농구팀을 응원하며 대부분 계속하고 있다.

빔 벤더스Wim Wenders의 2023년 영화 <퍼펙트 데이즈Perfect Days> 속 주인공 히라야마(야쿠쇼 코지)의 일상도 마찬가지로 '계속'의 반복이다. 도쿄의 공중화장실 청소부인 그의 삶은 수도승의 수행 의식처럼 정갈하다. 새벽녘 동네 할머니의 빗자루질 소리에 눈을 뜨고, 아끼는 분재에 분무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집 앞 자판기에서 매일 똑같이 마시는 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출근길 차 안에서 패티 스미스나 니나 시몬 같은 1960~70년대 아티스트의 노래를 여전히 카세트테이프로 듣는다.

뚝 끊기는 음악과 함께 차 문을 연 그는 도쿄의 일원이 된다. 도심 곳곳의 공중 화장실을 돌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고 정갈하게 닦아낸다. 점심시간 매일 같은 장소에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퇴근 후 단골 목욕탕에 들렀다 지하상가 선물집에서 맥주 한 잔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서 현책방에서 산 소설을 읽다 잠든다. 평일과 주말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루틴의 반복이다. 이웃과에게 따스한 눈인사와 “오늘도 수고했습니다”라고 외치는 단골가게 사장의 접객은 있지만 약속이나 가족은 없다. 때때로 조카의 예기치 못한 방문, 동료가 근무 핑크를 내는 등의 변수도 더러 발생한다. 그럴 때는 감정에 진폭이 생기지만, 이내 곧 차분히 정상 궤도로 복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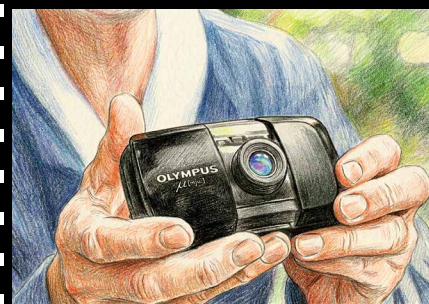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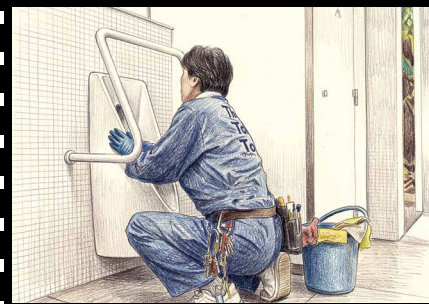
빔 벤더스의 카메라는 이 별일 없는 ‘퍼펙트 데이’를 잔잔하게 지켜본다. 주연을 맡은 야쿠쇼 코지는 정적인 일상 속 숭고한 삶의 태도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며 제76회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별일 없는 일상이 주는 위안, 코모레비

별 것 없는 사람의 별다른 사건 없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자신의 ‘인생 영화’라 선언한 사람들이 많다. 히라야마의 반복되는 일상을 보면서 독거 중년의 찼함 대신 마음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건, ‘나의 속도와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는 데서 위안과 용기를 얻기 때문이다. 뉴스의 국제정세와 경제지표는 날마다 뉴노멀을 외치고, SNS에서는 매일매일 AI기술이 ‘미쳤다’는 소식이 쏟아진다. 우리는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변화에 불안해하며 조급해진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도전과 좌절,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의 압박,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 애쓰며 산다. 순간의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다.

같이 청소하는 후배 직원이 히라야마에게 묻는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다시 더러워질 텐데.” 하지만 히라야마는 대답 없이 자신의 기준과 매뉴얼대로 청소에 매진한다. 그에게 청소는 정화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확장하기보다,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려는 행위다. 곧 다시 더러워질 것은 중요하지 않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정돈된 상태를 보며 보람을 느낄 뿐이다. 후배는 이런 히라야마를 괴팍하다고 하지만, 그는 세상의 속도와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세상을 가꾸는 셈이다.

대사도 얼마 없는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다음, 친절한 설명을 덧붙인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의미하는 일본의 ‘코모레비木漏れ日’에 관한 짙막한 소개가 나온다. 오직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찻나의 아름다움. 히라야마가 매일 찍는 나무 사이 햇살 사진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짚어준다. 그가 왜 코모레비를 사진으로 기록하는지, 왜 여전히



카세트테이프를 듣는지, 왜 가족이나 동료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관한 이유는 끝끝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렴 괜찮다. 중요한 건 사연이 아니라 순간이니까. 그가 “지금은 지금이고, 다음은 다음이야”라며 조카와 주고받던 대사가 머릿속을 맴돈다.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와 문화적 취향

〈퍼펙트 데이즈〉는 현실을 팝핀하게 다루는 예술 영화들과는 시작부터 다르다. 스타일리시한 이유가 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재단과 도쿄 시부야구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더 도쿄 토일렛 The Tokyo Toilet 프로젝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획 영화다. 안도 타다오, 쿠마 켄고, 시게루 반, 토오 이토 등 세계적인 일본 건축 거장과 니고와 같은 저명한 아트 디렉터들이 참여한 해당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일본 영화와 도쿄를 사랑하는 세계적 거장 빔 벤더스에게 짧은 홍보 영상을 의뢰했다. 이에 빔 벤더스는 장편 영화로 만들자고 역제안하고 단 2주 만에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참고로, 히라야마라는 이름도 그가 존경하는 오즈 야스지로의 마지막 영화 〈꿈치의 맛〉 주인공에게서 따왔다.



소박한 히라야마의 일상은 잘 가꾸진 분재 같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그의 정갈한 살림살이와 프로페셔널한 태도, 문화적 취향에서 노동의 고단함, 부양의 무게, 생존의 분투, 독거 중년의 쓸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가족과 등진 어느 자산가 집안의 장남이란 설정은 삶의 더께를 일시에 털어낸다. 그런데도 그의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마음이 이끌리고, 그의 잔잔한 생활과 지은 듯 단 듯한 희미한 표정에 스며들게 되는 것은 바로 히라야마의 일상과 영화 안팎에 짙게 배어 있는 취향의 힘 덕분이다.

정갈한 살림, 도쿄의 풍경, 루 리드와 니나 시몬의 음악들은 그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이다. 밤에 작은 독서등 아래에서 책을 읽는 장면은 영화 포스터가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처럼 근사하다. 고단한 노동을 하고 돌아와 소주 한잔을 마시며 정치 뉴스를 보는 대신 윌리엄 포크너의 〈야생 종려나무〉에서 인간의 처절한 고독을, 파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에서 불안의 본질을, 코다 아야의 〈나무〉를 보며 제자리를 지키는 생명력의 단단함을 읽는 그의 모습에 경외심이 깃든다.

일상을 지키는 울타리, 취향

스티브 잡스는 일찍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은 취향으로 수렴한다”라고 했다. 그의 통찰은 AI시대가 펼쳐진 지금

다시금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 전문적 기술과 지식의 장벽이 낮아지고 누구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무엇을, 어떤 감각으로 선택하는가’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차별점이 되기 때문이다.

히라야마가 취향에 천착하는 건 미래지향적인 자기계발의 차원에서가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지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살거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감정, 기억, 자유, 무엇이 되었든 그 순간을 붙잡고, 머물고자 한다. 엔딩 크레딧 끝에 수줍게 등장하는 ‘코모레비’의 정의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들을 자신만의 질서와 취향으로 가꿔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히라야마의 일상 루틴은 그래서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세상을 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자, 자신의 감각과 정서를 매일 같이 마주하기 위한 수행이다. 그렇게 갖게 된 자기만의 세계와 평온한 리듬은 우리가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일상에 끌리는 본질적인 이유다.

취향이란 자기만의 세계를 이루는 울타리다. 아무리 거센 변화와 불안이 들이쳐도, 고요하게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힘이다. 무엇이 정당인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취향을 찾고 가꾸는 일은 나를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지친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 될 수 있다. 일본 최고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참여한 도쿄의 공중화장실의 미감도, 문화적 상징들이 자아내는 정서적 교감도, 모두 정교하게 깔린 취향의 발현이듯 말이다.

변화와 불안의 시대,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취향의 울타리가 더욱 필요하다.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내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된다. 단단하게 다진 취향은 자신만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자동항법 장치다.

김교석은 영화와 드라마, 예능과 OTT 콘텐츠를 아우르며 대중문화를 동시대 사회의 감정 구조로 읽어내는 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다. 영화 전문지 〈필름2.0〉에서 필진으로 활동하며 비평 작업을 시작했고, 이후 신문과 잡지,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플랫폼에 꾸준히 글을 기고해왔다. 저서로 〈아무튼, 계속〉, 〈오늘도 계속 삽니다〉 등이 있으며, ‘계속 살아간다’는 태도를 중심에 두고 일상과 노동, 감정의 지속에 대해 사유하는 글을 담고 있다.



바람을 담은 지혜,
선자
扇子

Seonja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전시기획: 진효승, 한지작가: 한아름)

“
선자는 부채를 가리키는 옛말이다.
실용적인 기능을 지닌 생활 도구이면서,
오랜 세월 한국의 생활과 예술 속에
자리해 온 전통 공예이다.
”

바람을 만드는 전통, 선자와 합죽선

손 안에서 펼쳐지는 작은 바람, 선자(扇子)는 더위를 식히는 도구를 넘어 오랜 세월 한국의 생활과 예술 속에 자리해 온 전통 공예다. 대나무 살과 한지로 이루어진 가볍고 섬세한 구조는 실용성을 넘어 접었다 펼칠 수 있는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한국의 전통 부채는 크게 둥근 형태의 단선(團扇)과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선자(扇子)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선자는 특히 조선 시대에 발달한 공예품으로, 대나무를 얇게 쪼개 만든 부챗살과 한지 또는 비단으로 만든 부채면을 결합해 제작한다. 접혀 있을 때는 한 손에 쥌 수 있을 만큼 가늘지만, 펼치면 부드러운 반원형의 곡선이 만들어지며 자연스러운 바람을 일으킨다.

한국 선자의 중심에는 전주가 있다. 조선 시대 궁중과 사대부가에서 사용하던 부채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으며, 대표적인 것이 합죽선(合竹扇)이다. 합죽선은 대나무를 두 겹으로 붙여 만든 부챗살을 사용해 얇으면서도 가볍고 단단한 구조를 갖는다. 장인은 수십 개의 대나무 살을 깎고 맞추는 과정을 거쳐 부채의 구조를 완성하고, 그 위에 한지를 붙여 접는 선을 잡는다.

부채는 생활용품을 넘어 예술의 매개가 되기도 했다. 부채면에 산수화나 난초, 매화 같은 문인화가 그려지거나 시문과 서예가 더해졌다. 선비들이 서로 부채를 주고받으며 글과 그림을 나누는 일도 흔했다. 작은 공예품 위에 한 시대의 미감과 소통의 문화가 담겼던 셈이다.



오늘의 생활 속으로 돌아온 부채

오늘날 선자는 전통 공예의 유산이자 현대 디자인 오브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주의 합죽선은 지금도 장인들의 손을 통해 제작되며 전통 공예품이자 지역 문화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 구조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부채도 등장하고 있다.

한지를 활용한 부채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 자연스러운 바람을 만들어낸다. 전통 문양 대신 단색 패턴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도 늘고 있으며, 공예 브랜드와 디자인 스튜디오의 협업을 통해 부채는 여름철 라이프스타일 소품으로도 활용된다.

환경과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채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 도구라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는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도 손으로 만들어내는 여전히 가장 단순하고 인간적으로 여름을 나는 방식이다. 손목의 작은 움직임만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은 여름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자연스러운 시원함을 전한다.

더위를 식히는 도구이지만, 부채를 펼치는 순간에는 여름의 공기와 몸의 움직임이 함께 느껴진다. 천천히 흔들리는 부채의 리듬은 한여름의 시간을 조금 느리게 흐르게 한다.

전통 합죽선을 고를 때는 부챗살의 간격이 고르고 부채를 펼쳤을 때 반원형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한지의 질감이 부드럽고 접힘선이 단정할수록 바람도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진다.

작은 물건 하나가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접혀 있던 부채가 펼쳐지는 순간, 손 안에는 바람이 생긴다. 선자는 그렇게 자연의 흐름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오래된 생활의 지혜다.



1 | 2

- 1 한아름 공예작가의 <한지, 바람에 스미다> (2021) 전시 전경 (위에서부터)
- 2 (위에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박계호 선자장의 합죽선 / 국가무형유산 김동식 선자장의 합죽선 /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박계호 선자장의 합죽선

단순할수록
선명해지는 품격,
바르셀로나
체어

Barcelona Chair



100여년 전 박람회를 위해
만들어진 의자가 오늘날까지 공간의
기준이 된 이유



공간을 완성하는 한 점

1929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를 위해 한 점의 의자가 만들어졌다. 설계자는 독일 출신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판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이하 미스)다. 그는 독일관을 설계하며 그 공간에 어울리는 의자를 직접 구상했다. 그렇게 탄생한 바르셀로나 체어는 오늘날까지도 20세기 디자인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

이 의자는 당시 박람회의 독일관, 즉 오늘날 '바르셀로나 파빌리온(Barcelona Pavilion)'이라 불리는 건축물과 함께 계획되었다. 간결한 수평과 수직의 선, 개방된 공간 구성, 절제된 재료 사용으로 주목받은 이 건물은 근대 건축의 방향성을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바르셀로나 체어 역시 그 연장선에 놓인다. 건축과 가구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 | 2

바르셀로나 체어. 간결한 형태와 균형 잡힌 구조로 모더니즘 디자인의 미학을 보여준다.

하나의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처음 이 의자는 스페인 국왕 알폰소 13세 부부의 박람회 방문을 염두에 두고 고안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인지 형태는 단정하면서도 위엄이 느껴진다. X자 형태로 교차하는 강철 프레임은 단순하지만 힘이 있다.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구조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좌판과 등받이는 두툼한 가죽 쿠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버튼으로 고정된 표면은 정갈한 긴장감을 만든다. 차가운 금속과 부드러운 가죽이 대비를 이루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바르셀로나 체어가 특별한 이유는 외형에만 있지 않다. 이 의자는 전통적인 목재 가구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곡선으로 다듬은 강철 프레임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시도였다.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레임은 하나의 스테인리스 스틸 바를 매끄럽게 구부러 제작하는 방식으로 발전했고,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Less is more

"Less is more." 근대 건축의 거장 미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건축 철학의 문장이다. 바르셀로나 체어는 미스의 철학을 그대로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선은 간결하고, 형태는 명확하며, 구조는 솔직하다. 복잡함을 덜어낸 자리에는 비례와 균형이 남는다. 그리고 그 위에 장인의 손길이 더해진다. 가죽은 한 땀 한 땀 손으로 마감되고, 프레임은 정교하게 연마된다. 단순히 보이지만 완성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바르셀로나 체어는 여전히 현대적인 인상을 준다. 과장된 장식 없이도 힘 있게 드러나는 존재감, 시간이 지나도 남아 보이지 않는 균형감이 그렇다. 이는 특정 유행에 기대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설계와 정확한 비례, 재료에 대한 이해가 만들어낸 결과다. 건축가의 사고가 가구의 형태로 응축된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구를 넘어 하나의 조형물처럼 인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시대의 건축적 실험과 디자인 철학이 응축된 결과물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공간의 기준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이 의자를 떠올려도 좋을 것이다.

벚꽃
아래
하나미의 순간
花見

Hanami Festival

3월과 4월, 벚꽃 아래
모여드는 사람들로 일본 전역은
봄이 무르익는다.

1 | 2

- 1 벚꽃이 만개한
강가에서 보트를
타며 봄을 즐기는
사람들, 일본의
대표적인 봄 풍경인
하나미의 순간
- 2 밤이 되면 조명
아래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 수양벚나무



꽃을 맞이하는 봄의 의식

3월에서 4월 사이, 일본 전역은 열은 분홍빛으로 물든다. 벚나무가 꽃을 터뜨리는 이 시기, 사람들은 공원과 강변, 사찰과 성곽 주변으로 모여든다. 돛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누며 꽃 아래에 머무는 풍경. 이를 '하나미花見'라 부른다. 말 그대로 '꽃을 본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계절을 맞이하는 하나의 의식에 가깝다.

하나미의 기원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 시대奈良時代(서기 710년~794년)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풍습이 있었고,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서기 794년~1185년)에 이르러 벚꽃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무사 계층과 서민층으로 확산되며 오늘날과 같은 봄맞이 행사로 이어졌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전역에서 동시에 펼쳐진다는 점에서, 하나미는 계절을 공유하는 집단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벚꽃은 대개 일주일 남짓 피어 있다가 바람과 함께 흩어진다. 이 짧은 개화 기간은 하나미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꽃 아래에 모인다. 직장 동료와 가족, 친구가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다. 회사 단위로 자리를 맡아두는 모습도 일본의 봄철 풍경 중 하나다. 밤이 되면 조명이 더해진 '요자쿠라夜桜(밤 벚꽃)'가 또 다른 장면을 만든다. 낮과는 다른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꽃을 감상하는 시간이다.

짧게 피고 지는 계절의 풍경

도쿄의 우에노 공원, 치도리가후치 공원, 교토의 마루야마 공원 등은 대표적인 하나미 명소로 꼽힌다. 해마다 많은 인파가 찾는 이곳에서는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벚나무 아래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강물 위로 떨어진 꽃잎은 또 다른 봄의 장면을 만든다. 지역마다 개화 시기가 조금씩 달라 이 시기 일본의 뉴스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벚꽃 전선'이 이동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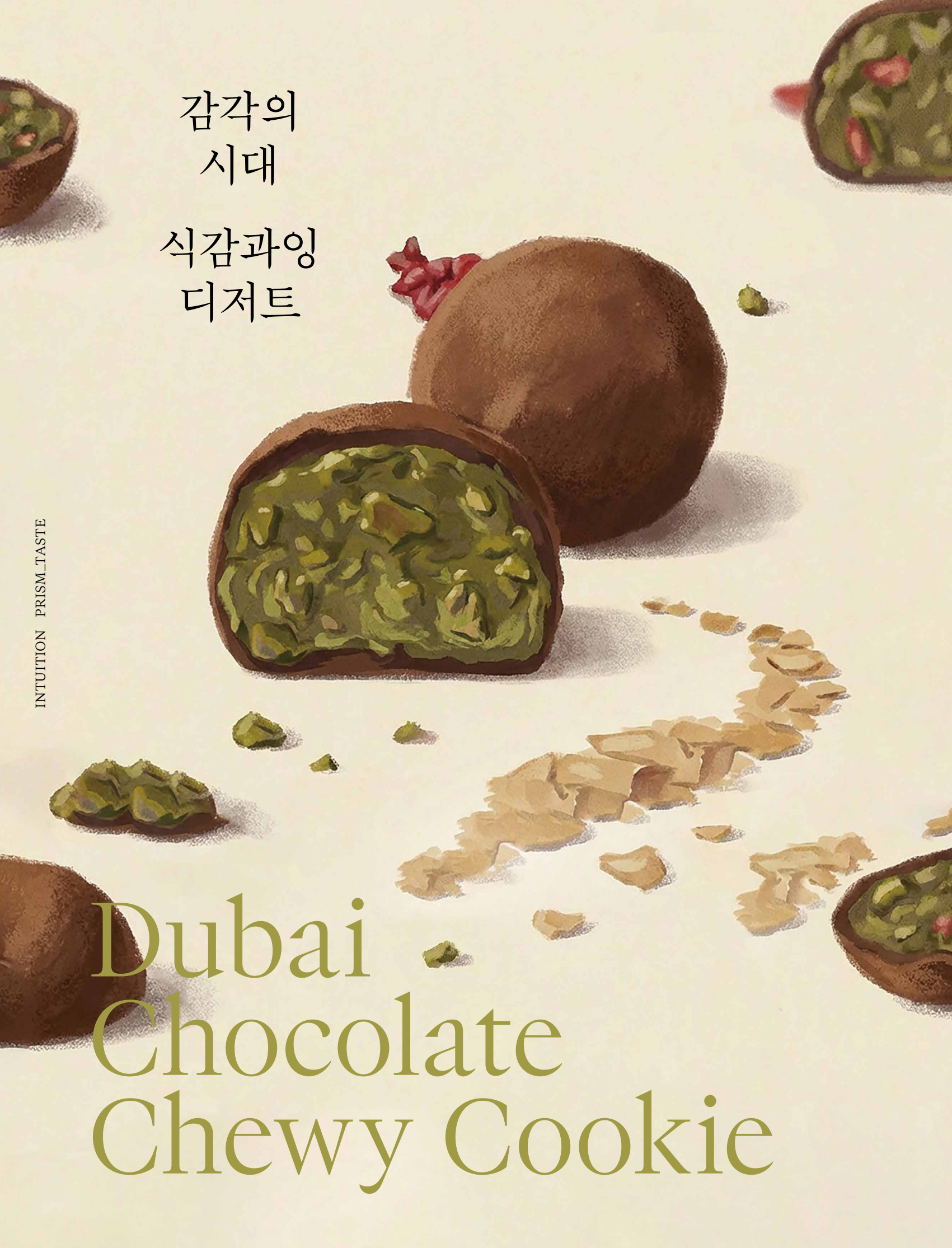
하나미는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벚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한정 상품과 계절 메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때를 두고 '벚꽃 경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상점과 카페, 백화점은 벚꽃을 모티브로 한 기간 한정 상품을 선보이고, 도시 간 이동도 크게 늘어난다. 꽃이 피는 짧은 기간이 도시의 활기를 끌어올리는 셈이다.

그러나 하나미의 중심에는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머무는 시간'이 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저 벚꽃 아래 앉아 잠시 시간을 보내고, 곧 사라질 장면을 눈에 담는 것. 벚꽃은 매년 같은 자리에서 피지만 그 아래에 앉은 사람의 시간은 매년 다르다. 그래서 하나미는 단순한 꽃놀이를 넘어, 계절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되새기는 봄의 축제로 남는다.

벚꽃이 피는 며칠의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봄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잠시 머물렀다가 흩어지는 꽃잎처럼, 사람들은 그 순간의 풍경을 기억 속에 조용히 담아 간다.

감각의 시대
식감과잉 디저트

Dubai
Chocolate
Chewy Cookie



“
‘두바이 쫄쫄 쿠키’가 SNS를
뒤덮고 있다.
요즘 디저트는 맛보다 식감으로
먼저 설명된다.
”

식감이 먼저 온다

요즘 디저트는 맛보다 식감으로 설명된다. 쫄쫄함, 바삭함, 눅진함, 꾸덕함. 메뉴 이름보다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디저트의 단면은 두껍고 과감하게 잘려 보여지고, 쿠키는 반으로 갈라지는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다. 초콜릿은 늘어나고, 크림은 흘러내리며, 과자는 부서진다. 먹기 전의 장면은 이미 하나의 경험이 된다. SNS에서 반복해 보여주는 것은 레시피가 아니라 식감이다.

이러한 경향은 글로벌 디저트 트렌드에서도 확인된다. 식품 트렌드 분석 기관 민텔Mintel의 <2025 플레이버 미래 예측 트렌드The Future of Flavours 2025> 보고서는 음식 경험에서 ‘식감 혁신texture innovation’과 같은 다중 감각 요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바삭함과 쫄쫄함처럼 서로 다른 질감을 결합한 음식이 소비자의 흥미를 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디저트들을 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분명하다. 중동에서 시작해 SNS를 통해 확산된 ‘두바이 초콜릿’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초콜릿 속에 피스타치오 크림과 얇은 카다이프Kadayif 페이스트리를 넣어 바삭함과 끈적한 질감을 동시에 강조한 구조다. 뉴욕의 ‘르뱅 베이커리Levain Bakery’ 스타일 쿠키나 미국의 디저트 브랜드 ‘크럼블 쿠키스Crumble Cookies’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 디저트들은 섬세한 풍미의 균형을 추구하기보다 특정한 식감을 강하게 부각한다. 부드러움과 바삭함, 끈적함과 부서짐 같은 대비되는 질감이 하나의 디저트 안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오늘의 디저트는 맛을 조화롭게 섞기보다, 서로 다른 식감을 충돌시키며 경험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확신 가능한 감각

이 변화는 단순한 미식의 진화라기보다 소비 문화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과거의 음식 경험이 향과 맛의 미묘한 차이를 천천히 음미하는 방식이었다면, 오늘의 소비 환경은 더 빠르고 즉각적인 감각을 선호한다. 씹는 순간의 탄력, 바삭하게 부서지는 소리, 입안에서 퍼지는 질감은 복잡한 설명 없이도 바로 이해되는 신호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소비 문화에서 이야기되는 ‘감각 경제sensory economy’와도 연결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각·촉각·청각 같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다. 음식에서는 특히 식감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며, 감각적으로 명확한 경험을 제공하는 디저트가 더 쉽게 공유되고 소비된다.



디지털 환경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가속한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같은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는 음식의 단면이나 질감을 강조한 장면이 빠르게 확산된다. 단면이 갈라지는 순간, 바삭하게 부서지는 소리, 늘어나는 크림의 질감처럼 시각과 청각으로 즉각 전달되는 장면은 알고리즘 속에서 더욱 중독성있게 비춰진다. 디저트는 이제 맛뿐 아니라 ‘보여지고 들리는 음식’이 된다.

심리적 요인도 작용한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복잡한 의미보다 즉각적으로 체감되는 경험을 선호한다. 감정이나 서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지만 감각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쫄쫄한 것은 쫄쫄하고, 바삭한 것은 바삭하다.



그래서 오늘의 디저트는 위로나 서사를 말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강조한다. 한 입의 식감은 짧지만 확실하다. 어쩌면 ‘식감 과잉’ 디저트의 유행은 음식의 변화라기보다, 감각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려는 현대 소비 문화의 단면일지도 모른다.

큐가든, 도심 속 일상의 안식처

글. 김정후

모두를 위한 공원

런던에는 하이드파크Hyde Park, 리치먼드 파크Richmond Park, 리전트 파크The Regent's Park를 비롯해 전 세계인이 찾는 8개의 왕립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공원의 총면적은 약 612만 평으로 여의도의 약 8배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33개 자치구가 직접 관리하는 3,000개가 넘는 시민 공원이 도심 곳곳에 분포해 있다. 이러한 풍부한 녹지 덕분에 런던의 녹지율은 약 47%에 이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푸른 도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런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50년까지 녹지율을 50%로 확대해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도시[National Park City]'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많은 공원 가운데서도 런던 시민이 특별히 사랑하는 곳이 있다. 바로 '왕립 식물원 큐가든Royal Botanic Gardens, Kew'이다. 큐가든에는 10여 개의 대형 온실과 30여 개의 테마 정원을 중심으로 2만 7천 종의 살아 있는 식물과 850만 점의 건조 표본이 보존되어 있다. 또한 이곳은 75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1400명의 직원이 일하는 거대한 연구 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는 연구원,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직원,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주민, 풍경을 사진에 담은 방문객의 모습 속에서 이곳이 단순한 연구 기관 이상의 공간임을 알게 된다. 큐가든은 정원이자 연구소이고, 옛 대영제국의 아카이브이자 일상 속 공원이다.

큐가든의 시작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헨리 카펠Henry Capel 남작이 템스강이 크게 굽어지는 런던 서쪽 끝자락에 조성한 작은 외래 식물 정원이 출발점이었다. 정원은 왕실의 사적인 취미 공간으로 활용되며 교양과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어우러진 장소로 발전했다. 1840년 공식적으로 왕립 식물원으로 승격되면서 대형 온실과 다양한 정원이 조성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정원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약 14만 6천 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에는 온실과 테마 정원이 펼쳐져 있으며, 전 세계에서 수집된 희귀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 왕실의 정원이었던 이곳은 점차 세계 식물 연구와 균류 과학의 중심으로 성장하며 제국의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큐가든은 대영제국 시기 식물학 연구와 경제 작물 확산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었다. 차나무, 고무나무, 향신료 등 주요 작물의 이동과 재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영국 식물학은 세계적인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5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이곳에서 식물 생리학, 생태학, 해부학, 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큐가든이 흥미로운 이유는 연구 대상과 연구 공간이 하나의 경계 안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허바리움Herbarium 창문 너머로는 19세기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에서 채집한 표본과 같은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분자 실험실 옆 온실에서는 오늘 채집한 조직이 실시간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큐가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식물 과학 연구기관이자 생물다양성 보존의 핵심 거점이다.

건축과 조경이 만든 시적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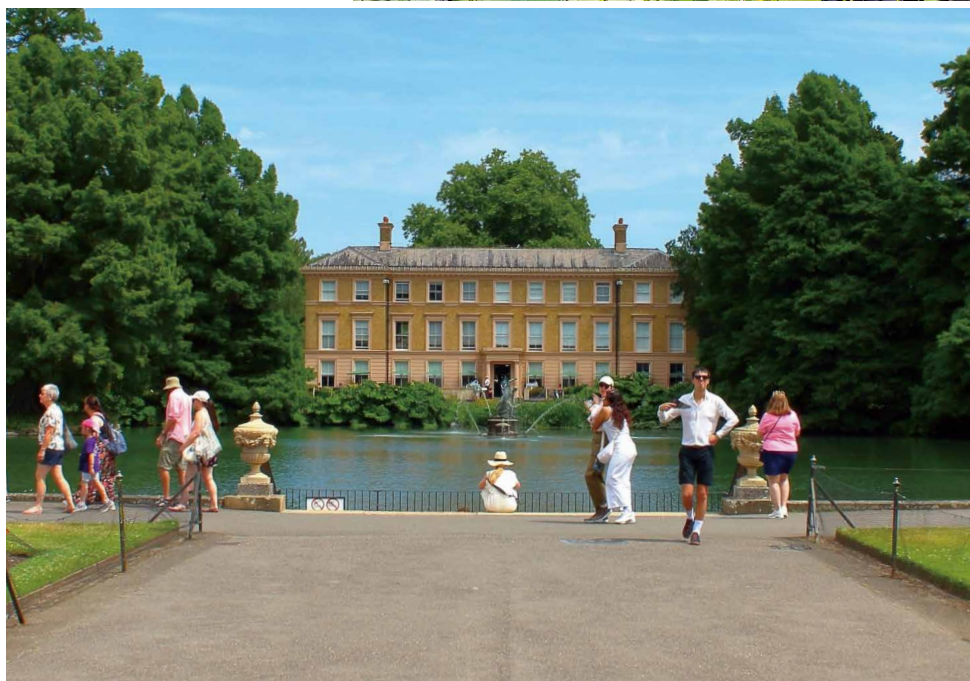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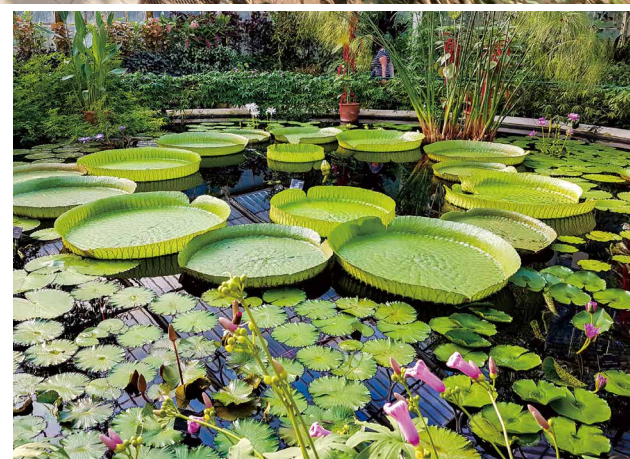
1841년 큐가든이 대중에게 문을 열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정원의 개방이 아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은 산업화의 압력 속에서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흔들리던 중이었고, 그 혼란 속에서 '올바른 휴식'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왕립 식물원 큐가든
(Royal Botanic Gardens, Kew)



- 1 큐가든의 대표적인 유리 온실, 팜 하우스
- 2 나무 높이에서 숲을 바라보는 트리탑 워크웨이
- 3 워터 릴리 하우스 안의 거대한 수련과 열대 수생 식물
- 4 정원 한가운데 놓인 호수와 오래된 건물이 만들어내는 큐가든의 일상적 풍경



있었다. 음주, 도박, 격투와 같은 여가는 중산층이 추구하던 도덕적 기준과 쉽게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큐가든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도시인들에게 식물과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준 힐링 공간이 되었다. 개방 첫해부터 시민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고, 1850년에 이르러 연간 방문객 수가 이미 17만 명을 넘어섰다.

이 높은 관심에 화답하듯 1848년에 팜하우스Palm House가, 1899년에 템퍼레이트하우스Temperate House가 차례로 완공되었다. 이 두 구조물은 빅토리아 시대 건축의 대표적 성취로 꼽힌다. 팜하우스는 세계 최초로 대규모 연결 구조를 사용한 온실로, 1만 6천 장의 유리 패널과 12개의 보일러, 그리고 열대 식물이 요구하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계 시스템이 결합된 건축물이다. 방문객은 팜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무겁고 습한 열대의 공기 속으로 빨려들며 전혀 다른 기후와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팜하우스보다 두 배가 큰 템퍼레이트하우스는 완공까지 40년이 걸렸으며, 빅토리아 시대에 건립된 가장 큰 유리 온실이다. 당시 원장 윌리엄 잭슨 후커William Jackson Hooker는 이곳을 개인의 계획이 아니라 국가의 자부심과 결부된 일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가져온 식물들이 온도대별 구획에 맞추어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한 건물 안에서 세계를 순례하듯 자연을 경험할 수 있다.

팜하우스에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뜻밖의 풍경이 나타난다. 바로 중국식 탑이다. 1762년 윌리엄 체임버스William Chambers가 어거스타 공주를 위해 건립한 그레이트 파고다The Great Pagoda로 높이 약 50미터 10층 팔각 탑이며, 각 층의 처마에는 목조 황금 용이 장식되어 있다. 건립 당시 유럽에는 중국과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확산되었고, 이른바 '시누아즈리Chinoiserie'라 불린 동양의 장식 양식이 정원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파고다는 그 시대 유럽인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동양의 이미지를 건축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탑 내부에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큐가든과 템스강 일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야외 정원들 역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다. 로즈 가든Rose Garden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피어나는 장미가 향기로운 길을 만들어 영국식 정원의 고전적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워터릴리 가든Waterlily Garden은 고요한 연못 위에 수련이 떠 있어 잔잔한 수면과 하늘빛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락 가든Rock Garden에는 굴곡진 바위 사이로 희귀 고산 식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일본 정원Japanese Garden은 절제된 선의 미학으로 이국적 정취를 풍긴다. 이 정원들은 식물의 다양성을 넘어 인간의 감각과 정서를 어루만지는 예술적 풍경으로 자연이 선사하는 시간의 흐름을 고요히 음미하게 한다.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서

큐가든은 인류의 식물학 연구와 정원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큐가든이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자연과학 연구와 환경 보존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장소임을 공인한 것이다. 사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정원과 온실, 넓은 잔디밭과 산책로는 시민들에게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한다. 동시에 아이들이 자연과 식물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널리 활용되어 런던의 녹색 철학이 가장 아름답게 구현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큐가든은 어두운 역사 또한 지니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이곳은 대영제국의 경제적 팽창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었다. 식민지 지역의 식물 자원을 수집하고 재배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원주민 토지 약탈과 강제 노동이 뒤따르기도 했다. 학계에서 큐가든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큐가든 역시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인정하며 과학적 관행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인류는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생태계 보호는 환경 문제를 넘어 인류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큐가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수백 년간 축적된 식물 연구와 생태 지식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토대이기 때문이다. 큐가든의 '밀레니엄 씨앗 은행Millennium Seed Bank'은 세계 야생 식물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씨앗을 저장하고 있으며, 팜하우스에 보존된 식물 중 상당수는 야생에서 이미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사라진 종들이다. 옛 대영제국의 식물 아카이브가 인류의 생태 보험으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큐가든을 방문하면 누구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앞에서 겸허해진다. 왕실의 정원이었던 이곳은 식민지 시대의 연구 거점을 거쳐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 보루로 변모하고 있다. 런던이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도시를 꿈꾸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시와 자연이, 과학과 일상이, 역사와 현재가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하며 발전하는 방식을 큐가든은 이미 250년 넘게 실행해 오며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후는 건축가이자 도시사회학자로 도시학, 사회학, 지리학을 넘나들며 도시와 건축의 본질을 탐구한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서울시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건축·디자인 정책과 프로젝트를 자문하고 연구한다. 영국 배스대학교 건축과 박사과정을 거쳐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런던의 도시 재생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런던시티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도시 연구를 수행하며 강의와 논문 지도를 하고 있으며,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 HONGIC

지속의 선수,

이상호

Lee Sang-ho

한국 스노보드를 이야기할 때 이상호라는 이름은 빠지지 않는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성과를 이어가며, 스노보드라는 종목이 한국 설상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좋은 날>은 이상호 선수를 만나 그가 어떻게 이 시간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해왔는지 들어보고자 한다. 자신의 리듬을 지키며 커리어를 확장해온 그의 이야기는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각자의 속도를 찾아가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스노보드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존재가 됐습니다.”

시작과 선택

한국에서 스노보드를 선택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그 선택의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즐거움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한국에서 스노보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훈련 환경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노보드를 탈 때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힘든 조건들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보드를 타는 순간만큼은 다른 어느 때보다 행복했고, 그 감정이 결국 제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계기와는 별개로, 스노보드를 계속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도 많았고, 내려놓고 싶다고 느낀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스노보드를 타는 순간만큼은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라고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특정한 순간이 있었다기보다는 힘들 때마다 다시 보드 위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그 즐거움은 계속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노보드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존재가 됐습니다.

지속과 리듬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도 자기 속도를 지키는 법은 무엇이었나요?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던 저만의 시간과 노력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또 결과에 흔들리기보다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훈련, 준비, 태도—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 속도를 잃지 않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이상호 선수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다시 중심에 세워왔나요?

사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슬럼프가 왔다'고 스스로 규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슬럼프라고 인정하는 순간, 정말 그 상태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단어를 제 마음속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언제나 우승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려고 합니다.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경기력에도 분명한 굴곡이 있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저는 그 흐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선수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스스로를 과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훈련이나 컨디션 관리 등에 다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다시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흐름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분명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는 즐거움과 좌절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 FIS 스노보드 월드컵 정상에 오른 이상호 선수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세운 원칙이나 루틴이 있었나요?

'모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제가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분명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는 즐거움과 좌절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남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때도 있고, 제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역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태도

경기 하나, 시즌 하나에 모든 의미를 걸기보다, 조금 더 길게 자신을 바라보게 된 시점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스노보드라는 종목은 우승 후보가 있다고 해도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큰 행운이 따라 한 번, 혹은 한 시즌 내내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해 힘든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번의 성적이나 한 시즌의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은퇴했을 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이후로 저는 더 긴 호흡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느낀 시기는 언제인가요?

올림픽을 겪을 때마다 가장 크게 성장한다고 느낍니다. 올림픽은 모든 선수에게 특별한 무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수로서 자신을 가장 깊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겪는 압박과 기대, 그리고 경기 이후의 결과까지 모든 경험이 한 번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기력만이 아니라 선수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함께 성숙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하나씩 지나올 때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돌보고 다시 균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후

요즘 이상호 선수님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기록인가요, 몸의 감각인가요, 마음의 상태인가요?

얼마전 열렸던 이탈리아 올림픽에서 기대했던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생각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은 이미 끝났고 제가 경쟁해야 할 시합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록이나 결과보다도, 제 마음의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돌보고 다시 균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선수'가 아닌 이상호로 살아가게 될 날을 상상해본 적이 있다면, 그때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스노보드 선수로 살아가는 인생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높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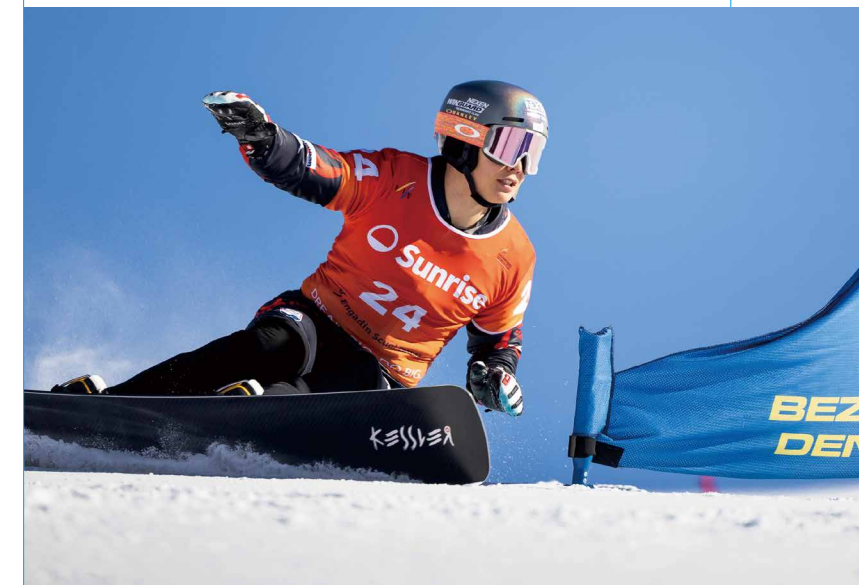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또 다른 노력과 도전이 있겠지만 적어도 스노보드를 부담 없이, 순수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과는 또 다른, 더 편안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스스로에게 한 문장으로 조언을 건넬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특히 방향에 가까운 말이라면 어떤 문장이 될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닌 최고다!

1 | 2

한국 스노보드를 세계 정상으로 이끈 선수, 이상호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이 후원하는 이상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알파인 스노보드 선수다. 1995년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 평행대회전과 평행회전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 무대에서 활약해 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었다. 어린 시절 배추밭이 있던 산비탈에서 스노보드를 타며 훈련한 일화로 인해 '배추보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는 그의 성실한 성장 서사와 함께 상징적인 애칭으로 자리 잡았다.

태국 방콕 도심 한가운데 광활하게 펼쳐진 벤짜끼띠 포레스트 파크는
과거 산업 부지에서 생태적 안식처로 전환된 상징적인 사례다.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과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도시를 살리는 공간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다.

도시를 살리는 공원

벤짜끼띠
포레스트 파크

글 계안나

Benchakitti Forest Park

태국 방콕은 멈추지 않고 팽창해온 도시다. 고층 건물이 하늘을 밀어 올리고, 고가도로가 교차하며, 콘크리트가 지면을 단단히 덮고 있다. 확장과 개발은 도시의 숙명처럼 여겨졌다. 그래서일까? 해발 평균 1.5m에 불과한 이 도시는 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몬순 아래 연간 1,500ml의 비를 감당해야 했고, 지하수 남용으로 지반이 내려앉아 물의 압력이 높아졌다. 폭우는 곧 도시 전체의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태국 정부가 도시 중심부 콘타Khonti 지구의 산업 부지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확장과 팽창 대신 도시가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만들고 시멘트 대신 물을 받아들이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렇게 약 42ha에 이르는 옛 담배 공장 부지를 생태 공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단층 창고가 뿔뿔하게 들어서 있고 콘크리트로 봉인되었던 땅. 북쪽에는 오염된 운하가 흐르고, 서쪽에는 고속도로가 인근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었다. 동쪽의 기존 벤짜끼띠 공원과 남쪽의 퀴 시리킷 국립 컨벤션 센터 사이에 놓인 이 터는 도심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고립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 땅을 개발하는 대신 전환함으로써, 자연과 사람, 도시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들고자 했다. 18개월에 걸친 프로젝트였다. 풍지안 위Kongjian Yu가 이끄는 투렌스케이프Turenscape와 아르솜실프 랜드스케이프 스튜디오Arsomsilp Landscape Studio는 물과 토양의 순환을 회복하는, 도시의 장치이자 숨통이 되는 생태 공원을 구상했다.

스펀지 시티

비가 쏟아지는 날의 방콕을 떠올려보자. 도시는 단단하다. 빗물은 스며들 틈을 찾지 못한 채 아스팔트를 타고 흘러 배수구로 몰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는 물에 잠기고, 낮은 지대는 순식간에 호수가 된다. 스펀지 대신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의 풍경이다. 건축가가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도시가 물을 밀어내는 대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더 높은 제방과 더 큰 배수관이 아니라, 땅 자체가 물을 머금도록 설계한다면



© Turenscape & Arsomsilp

어떨까?” 그렇게 탄생한 개념이 ‘스펀지 시티’다. 벤짜끼띠 포레스트 파크는 그 질문이 실제 지형으로 구현된 장소다. 건축가는 지형 자체를 설계의 핵심으로 두었다. 먼저 땅을 바꾸고, 그 위에 시간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택해졌다.

공사 과정은 의외로 단순했다. 외부에서 흙을 들여오거나 반출하지 않고, 땅을 깎고 다시 덮는 과정을 반복해 인공 습지를 만들었다. 단일 굴착기로도 실행 가능한 모듈형 방식이었다. 콘크리트로 단단히 덮여 있던 지면을 갈아엎고, 파낸 흙으로 둔덕을 형성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백 개의 작은 섬들은 마치 물 위에 흩어진 점들처럼 배치되었다.

공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네 개의 호수가 눈에 들어온다. 이는 장식적 수경 시설이 아니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 보면 물의 높낮이가 서로 다르고, 섬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깊은 곳은 폭우를 담아두고, 얇은 곳은 빛과 산소가 닿는 경계가 된다.

과거 공장의 콘크리트는 사라지지 않았다. 잘게 부서져 섬의 보행로 아래에 깔려 있다. 건는 이의 밑 밑에서 산업의 흔적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한다. 단단했던 지면은 이제 물을 밀어내지 않고, 머금고 지연시키는 구조가 되었다.

북쪽 경계를 따라 이어진 습지로 가보면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오염된 운하의 물이 천천히 식생 사이를 통과한다. 갈대와 수초,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물을 정화한다. 기계 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 들리는 정화 시스템이다.

중심부에는 직경 약 80m가 넘는 원형 잔디 극장이 자리한다. 이 공간은 집회와 행사, 공연을 수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남는다. 반사 수면은 하늘과 나무를 비추며 호수의 형태와 호응한다. 과거의 산업 구조물은 스포츠 센터와 박물관으로 전환되었다. 일부 지붕은 제거되어 빛과 바람이 스며들고, 식생은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한다. 건물은 자연과 분리된 실내 공간이 아니라 열린 경계로 재해석된다.

대형 공원을 가로지르는 보드워크를 따라 걷다 보면 이 구조가 몸으로 이해된다. 얇은 수면 위로 그림자가 흔들리고,



© Turenscape & Arsomsilp

갈대 사이로 바람이 불어온다. 직선적인 도로와 달리 구불구불한 동선은 걸음을 늦춘다. 수관 위를 지나가는 스카이 워크에 오르면 또 다른 장면이 열린다. 아카시아 잎 사이로 둔덕과 호수, 그리고 멀리 솟은 빌딩들이 한 시야 안에 집친다. 위와 아래, 자연과 인공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 공원이 저장할 수 있는 빗물은 최대 약 20만㎡.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다. 물은 곧장 사라지지 않는다. 머물고, 스며들고, 증발하며, 순환한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 방콕의 다른 지역이 침수되는 동안 이 공원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도시 한복판에서 생태 인프라가 실제로 작동한 순간이었다.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공원

이 공원은 ‘의도된 자연스러움Messy Nature’이라는 개념 아래, 설계는 완성된 풍경을 고정하지 않는다. 씨앗을 뿌리고 시간을 허용한다. 식생은 층을 이루며 자라고, 어떤 곳은 무성하고 어떤 곳은 비어 있다.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다듬는 대신 변화의 리듬을 받아들인다.

이에 계절이 바뀌면 풍경도 바뀐다. 건기에는 낮아진 수위 아래 토양의 질감이 드러나고, 우기에는 호수가 가득 차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든다. 새들은 머물렀다가 떠난다. 결국 이곳은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변화를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변화는 설계의 일부다. 철학은 설명문이 아니라 지형이 되었고, 개념은 수위와 식생의 높이로 번역되었다. 벤짜끼띠 포레스트 파크는 공원 프로젝트라기보다,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다시 쓰는 실험에 가깝다.

이곳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체 형성을 촉진한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 공원은 사회적 장벽을 낮추고 포용성을 확장한다. 실제로 지역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곳을 “방콕 최고의 공원이자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부른다.

- 1 옛 산업 시설을 재활용해 만든 공원 건물과 논 습지
- 2 도시 안에서 숲을 키우는 공원 시스템

도시 공원은 왜 필요한가

벤짜끼띠 포레스트 파크는 공원이 아니라 질문에 가깝다. 우리는 도시를 무엇으로 이해해왔는가? 더 높이 세우고 더 단단히 덮는 구조로서의 도시인가? 아니면 스스로 숨 쉬고 순환하는 생명체로서의 도시인가? 이 공원은 성장과 개발의 서사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방향을 잠시 멈추게 한다. 확장은 힘이었던 동시에 압박이었음을 드러낸다.

공원이란 공공 공간의 의미 또한 다시 쓰여야 한다. 공원은 더 이상 여가의 배경이나 도시 이미지의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며, 공동체가 공유하는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배제 대신 수용, 통제 대신 조율이란 키워드가 와 닿는 공원 말이다.

건축적 의미 또한 뚜렷하다. 이곳에서 설계는 형태를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를 조정한다. 무엇을 더 세울 것인가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먼저 묻는다. 기존의 수목과 산업의 흔적을 제거하지 않고 다른 맥락 속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은 도시를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태도와 닿아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할 공원은 화려한 상징이나 즉각적인 장관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시의 순환을 회복하고 관계를 조율하는 장소일 것이다. 물의 흐름을 되살리고, 토양을 열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여백을 남기는 공간.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다.

벤짜끼띠 포레스트 파크는 말한다. 도시는 자연의 반대편에서 있지 않다고! 우리가 단단함이 아닌 유연함을 선택할 때, 도시는 파괴의 구조가 아니라 공존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스며들 수 있는 땅 위에서 도시는 비로소 자신이 서 있는 기반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도시를 살리는 공원은 이제 방콕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녹색 도시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계안나는 런던을 기반으로 유럽 전역의 건축·디자인·인테리어·아트 현장을 직접 취재하는 칼럼니스트다. 공간에 스며든 시간과 감각을 기록하며, 이를 통해 시대의 미감을 읽어낸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아르헨티브’ 에이전시를 이끌며 두 문화권의 흐름을 미디어에 소개하고 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행복할까?

글. 박재식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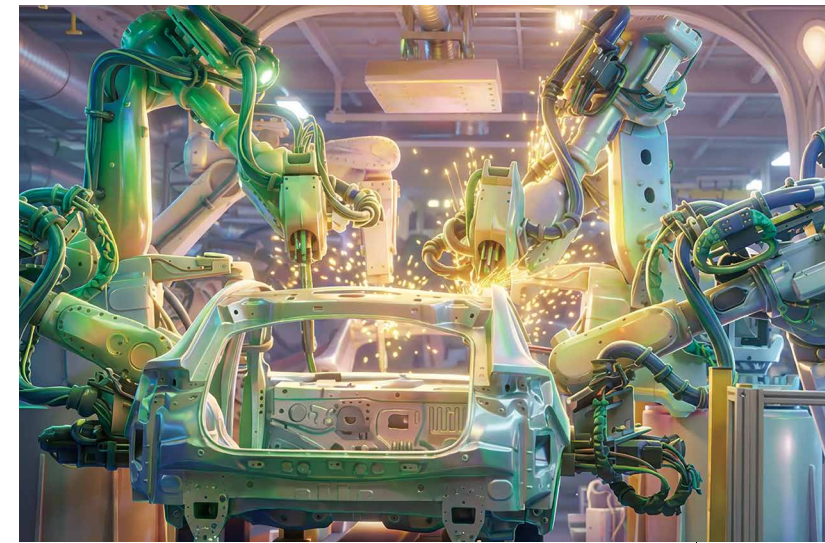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
미래의 공장으로
상상되던 풍경이
이제는 산업 현장의
일상이 되고 있다.

기계가 일을 대신하는 세계는 이미 오래된 상상이다

2026년 1월 8일 공개된 팟캐스트 The Joe Rogan Experience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 회장이 한 발언이 국내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20년 정도가 지난 후의 미래에 대해 전망하면서 그가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그 정도 미래가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인공지능, 로봇과 자동화 장치가 다 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해 주는 일 때문에 물자가 넘쳐 나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게 된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었다. 심지어 그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 직업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빠른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으로 사람 의사보다 로봇이 훨씬 더 의사 일을 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SF에서는 종종 등장하던 이야기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말이 사용된 사례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6년 전인 1920년, 체코의 SF 작가 카렐 차페크(Karel Čapek)가 쓴 희곡 《R.U.R. Rossum's Universal Robots》이다. 바로 이 작품에서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이 다뤄진다. 그러니 기계가 모든 일을 대신해 주고 사람은 놀고먹으면 되는 미래라는 생각은 '로봇'이라는 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근래에 나온 SF 작품 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다룬 사례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디즈니 애니메이션 《월-E WALL-E》 역시 사람이 전혀 일할 필요가 없게 된 미래를 다루고 있다. 작품의 말미에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을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가 묘사된다. 그 우주선 속 세상에서는 먹는 것을 준비하는 일, 입는 것, 사소한 일까지 모두 컴퓨터와 로봇이 다 대신해 주기 때문에 사람은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다. 《월-E》의 미래에서는 심지어 직접 걷는 것조차 귀찮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파 같은 것을 타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종종 등장한다.

이 밖에도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 같은 20세기 중반의 옛 SF 작가들 역시 비슷한 미래를 반복해서 상상해 왔다. 더 나아가 《스타 트렉 Star Trek》 시리즈 중에도 더 이상 생업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설정이 스치듯 언급된 적이 있다.

우리가 아직 연습해보지 않은 질문들

그런데도 머스크 회장의 이야기가 새삼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과거에 내놓았던 전망 가운데에는 전기자동차를 통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을 압도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이야기나, 민간 기업이 제작한 로켓으로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 우주 산업을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AI가 2026~2030년대 인류 지능을 능가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여 '노동 종말'의 시대가 올 것이라 예언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처음에는 현실성 없는 꿈처럼 받아들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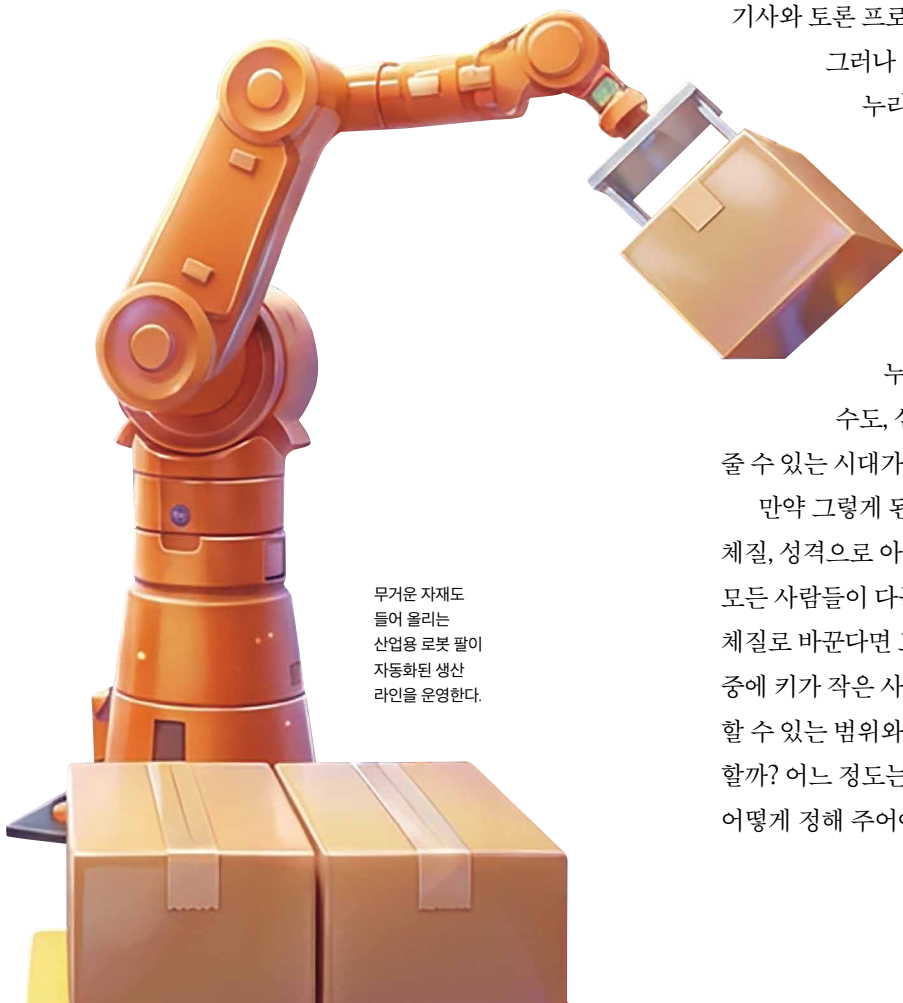
그러나 2026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상황은 달라졌다. 그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가총액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 잡았고, 우주 로켓 기업,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을 현실화하며 과거에 비해 우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그러니 같은 말이라도 그가 하는 이야기라면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관심을 끌 만도 하다.

여기에 더해 그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핵심 내용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해 쏟아지는 요즘의 주류 이야기에 비해 신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00년 전부터 많은 SF 작가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극도의 물질적 풍요가 실현되는 미래를 상상해 왔지만, 오늘날 더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는 다르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 로봇을 소유한 부자들만 더 부유해지고, 다수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문제인 빈부 격차를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점에서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공감을 얻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조선 시대처럼 신분의 격차나 봉당 간의 갈등이 핵심 문제가 되던 시대를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그렇다고 20세기 초-중반처럼 민족이나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이 삶의 중심 과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사회 문제는 지식 정보의 격차와 자산의 불평등이 된 듯하다.

물론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코 가볍지 않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며, 국가 단위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거운 자재도 들어 올리는 산업용 로봇 팔이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운영한다.

충분히 존재한다. 20년쯤 뒤에 논밭을 혼자 돌아다니는 로봇이 곡식과 과일을 끝없이 생산해 누구에게나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믿고 준비했는데, 만약 그 시점이 예상보다 단 1년만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단 1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빈부 격차와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지점에서는 당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빈부 격차를 넘어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사상이나 논쟁의 틀만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진정한 미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문제의 근원인가'를 따지는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 사고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떠올리게 하는 사례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유전자 조작과 인간 복제가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섰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에는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전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 더 아름다운 외모와 건강한 몸, 더 뛰어난 두뇌와 사교적인 성향을 갖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이런 가능성은 곧바로 빈부 격차 문제와 연결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녀의 유전자까지 개선해 점점 더 우수한 후손을 낳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더 취약한 자녀를 낳아 대물림되는 가난에 갇힐 것이라는 이야기가 신문 기사와 토론 프로그램, 심지어 교과서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기술의 가격은 빠르게 낮아지며 기술을 누리는 사람들의 범위는 갈수록 빠르게 넓어지기 마련이다. 가난한 사람은 유전자 조작을 못하고 부유한 사람만 유전자 조작을 한다는 문제는 미래에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 유전자 조작의 가격이 경이로울 정도로 낮아져 누구든 마음대로 아기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도, 심지어 국가에서 공짜로 유전자 조작을 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들 유행하는 몸, 얼굴, 체질, 성격으로 아기의 유전자를 조작하게 해 주어도 될까? 모든 사람들이 다들 유전자 조작으로 자식을 키가 크고 날씬한 체질로 바꾼다면 그런 세상에서는 조작되지 않은 기성 세대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을 "열등하다"고 말할까?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 범위와 하지 못하는 범위를 국가에서 정해 주어야 할까? 어느 정도는 정상이고 어느 정도는 비정상이라고 누가, 어떻게 정해 주어야 옳은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속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

사람의 일을 인공지능이 모두 대신해 주는 미래 역시 아예 다른 시대의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 준다. 단기적인 일자리 문제 이후의 먼 미래를 보면 인공지능의 꾸준한 발전은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 그 다음으로 나아 가게 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단 한 사람이 한국의 모든 GDP를 독점하고 나머지 모든 인구가 일자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가정해 보자. 언뜻 생각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극에 달한 지옥 같은 사회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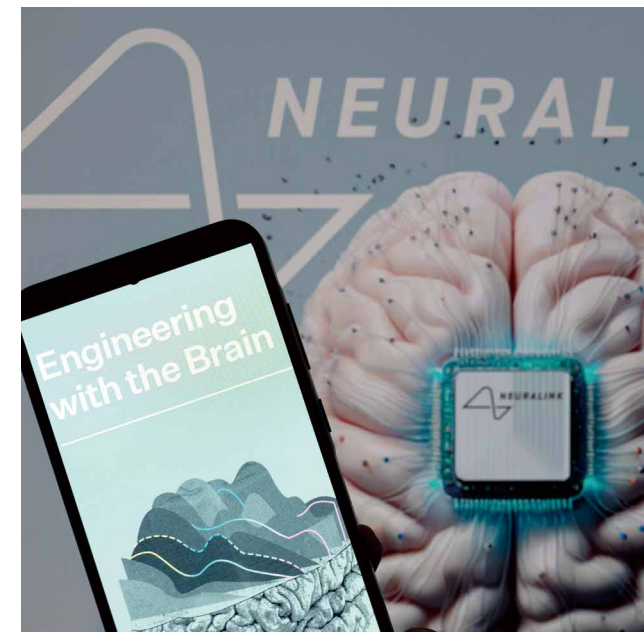
그런데 굳이 그 한 사람에게 새로운 대단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누진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만 한다면 그 한 사람에게 소득세로 1100 조원 이상의 세금을 매년 거둬들일 수 있다. 이 돈을 국민들에게 그냥 나눠 주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4인 가구 마다 매년 8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추가로 지혜로운 대책을 더 만들어 낸다면 일자리 문제를 더욱 부드럽게 극복해 모든 사람이 먹고 살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미래로 나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노동의 필요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는 풍요 사회에서 사람들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며 지금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과거 사람들이 꿈꾸던 낙원은,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면 모두가 시를 쓰고 음악과 미술로 감성을 표현하며 예술을 즐기는 우아한 세계가 될 것이라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예술 활동 그 자체에서 삶의 보람과 성실함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재능과 집중력을 지닌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더구나 그런 미래가 찾아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시나 음악을 만드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예술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끝없이 만들어 주는, 구미에 딱 맞게 만들어 놓은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는 것이 내가 공을 들여 무엇인가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즐거울 수도 있다.



- 1 시와 자동화 시대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선 기업가 일론 머스크
- 2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다음 인터페이스는 화면이 아니라 뇌다.



로봇이 방을 청소해 주고 식사를 차려 주는 공간에서, 로봇이 만들어 내는 옷길 영상들을 하루 종일 바라보며 지내는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먹고살기 바쁘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에서 모두가 해방된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방종과 나태, 타인에 대한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 쾌락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혹은 극단적이고 과격한 사상에 대한 몰두로부터 지켜 낼 방법은 존재할까?

인간의 회로연락을 담당하는 두뇌는 척박한 야생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한 영장류의 산물이다. 두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은 그대로인 채, 그 진화의 배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대한 풍요가 주어졌을 때 인간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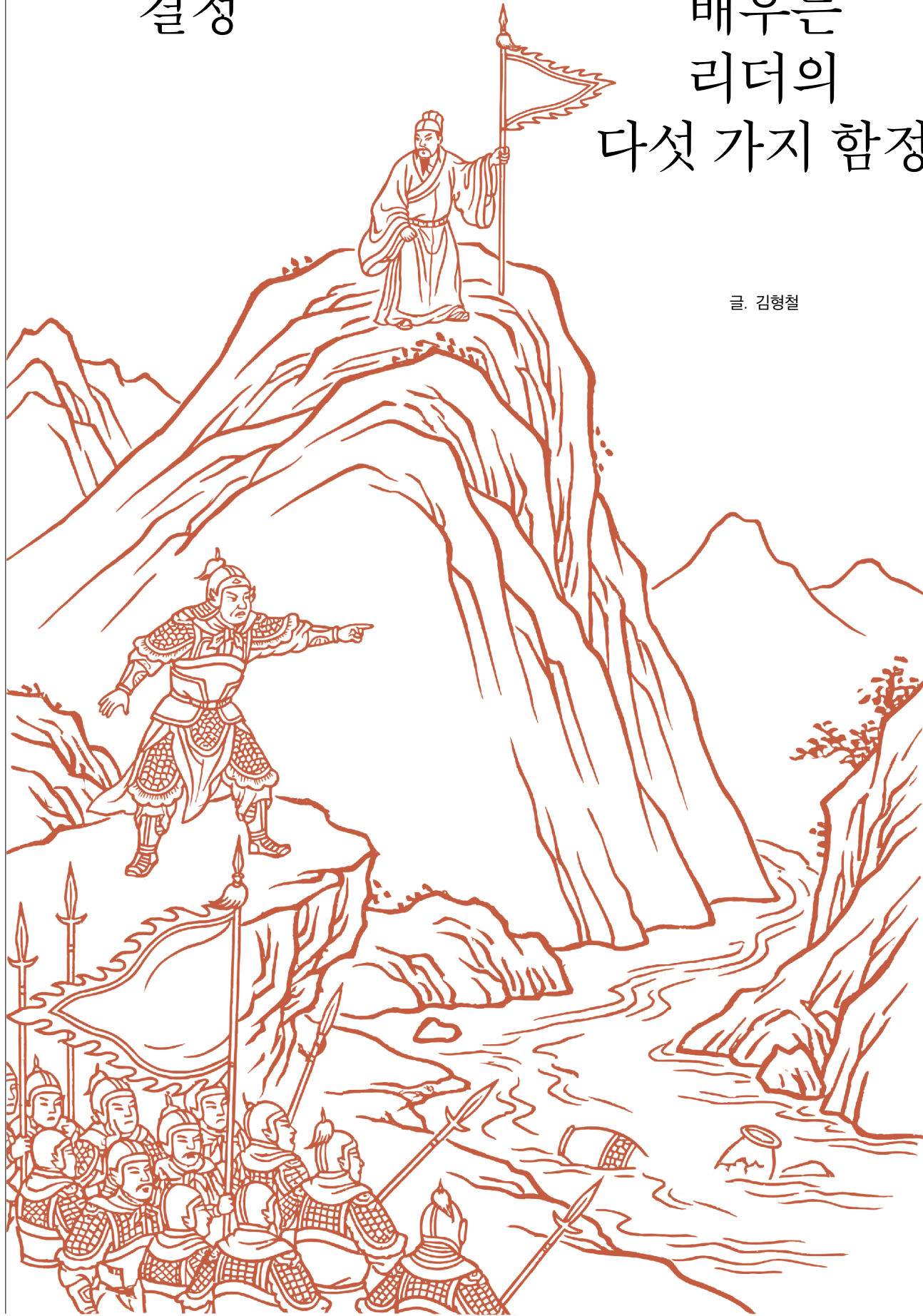
나는 미래가 발전하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불과 20년 만에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은 시간을 지나치게 가깝게 예상한 오류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어느 먼 미래를 상상해 보면서 기초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 우리를 옴아매고 있는 당장의 문제를 바라보는 틀에서 잠시 벗어나, 더 넓고 깊은 사유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삶의 가치와 보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근본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시간이 되어 줄 것이다.

관재식은 과학기술과 인문학, 일상과 상상력을 넘나들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공학을 전공한 연구자 출신으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와 강연, 방송활동을 통해 과학을 보다 생활에 가까운 언어로 풀어내 왔다. 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과학 교양과 기술 담론을 일반 독자에게 친근하게 전달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라디오와 TV 출연, 대중 강연을 통해 과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고독한 결정

삼국지에서 배우는 리더의 다섯 가지 함정

글. 김형철



삼국지는 흔히 승패와 계약의 이야기로 소비된다. 그러나 삼국지의 진짜 깊이는 다른 곳에 있다. 모든 결정적 장면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시간은 부족하며, 정보는 불완전한 상황에서 선택을 감내해야 하는 고독한 인간이 서 있다. 경영학이 VUCA(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모호성)라 부르는 바로 그 상황이다. 첩보는 거짓과 뒤섞여 있고, 동맹은 하루아침에 뒤집히며, 전장의 날씨마저 예측 불가능하다. 천하의 영웅이라 불리는 이들조차 이 안개 속에서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역시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인지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글은 삼국지의 다섯 장면을 다시 읽는다. 누가 이겼는지를 묻지 않는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리더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를 묻는다. 네 개의 함정, 그리고 그 함정을 역이용한 한 사람의 이야기다.

첫 번째 함정. 마속 - 자기 확신의 감옥

서기 228년, 촉한의 운명을 건 제1차 북벌. 가정이란 요충지의 방어가 마속에게 맡겨진다. 마속은 병법서를 꿰뚫은 수재였다. 가정에 도착하여 산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병법 구절이 떠오른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대나무를 쪼개듯 적을 꺾을 수 있다.”

그는 즉시 산꼭대기에 진을 치겠다고 선언한다. 부장 왕평이 반대한다. “산 위에 올라가면 수원이 끊깁니다. 적이 포위하면 싸우지 않고도 무너집니다.”

명쾌한 경고였다. 그러나 마속은 이를 이룬 없는 무장의 소심한 의견으로 치부하고 “사지에 몰아넣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또 다른 구절로 자기 결정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확증 편향이다. 기존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 증거는 평가절하하는 경향. 결론이 먼저 있고 근거는 나중에 찾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점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믿음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더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장합이 수원을 차단하자 군대는 갈증 속에 무너졌고,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베었다. 읍참마속. 이 비극의 뿌리는 무능이 아니라 지능이 자기 확인의 도구로 전략한 데 있었다.

마속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다. “적이 나의

결정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적이 내 선택을 환영한다면, 그것은 나쁜 선택이다. 손자가 말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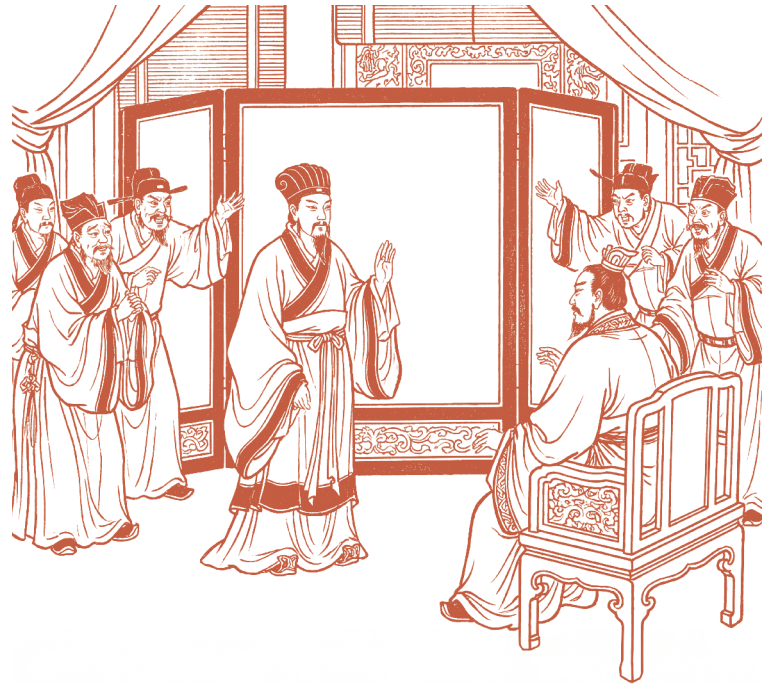
마속은 적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편향을 몰랐기 때문에 졌다. CEO가 이미 결론을 내린 뒤 열리는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살아남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성찰: 나는 왜 이것이 옳다고 확신하는가? 적이 내 결정을 환영한다면, 그것은 나쁜 결정이 아닌가?

두 번째 함정. 조조 - 승리의 기억이 만든 착각

서기 208년 겨울, 조조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장강을 향한다. 관도에서 열 배의 적을 꺾었고, 형주는 무혈 입성했으며, 유비는 당양에서 대파했다. 그의 기억은 압도적으로 승리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쉽게 떠오르는 사례가 많을수록 그것이 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향. 조조의 군대는 북방 출신이라 수전에 취약했고 병사들은 멀미에 시달렸지만 과거 승리의 생생한 기억이 이 약점을 가렸다. 방통의 연쇄선 전략을 받아들여 배를 쇠사슬로 묶었을 때, 안정적인 배 위의



승리라는 이미지는 선명했고, 연결된 배가 한꺼번에 불타는 이미지는 겨울이라 추상적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동남풍이 불었다. 황개의 화선이 돌진했다. 쇠사슬로 묶인 함대는 불타는 감옥이 되었고, 천하 통일의 꿈은 강물 위의 연기와 함께 사라졌다.

조조에게 필요했던 질문이 있다. “과거에 압도적 우세에도 패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다면, 조조 자신이 관도에서 원소의 우세를 뒤집었던 기억이 떠올랐을 것이다.

안개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기억이 반드시 출구는 아니다. 지난 분기의 성공이 이번 분기를 보증하지 않는다.

성찰: 이 판단은 데이터에서 왔는가, 과거 승리의 기억에서 왔는가?

세 번째 합정. 유비 - 복수심에 맞을 내린 전략가

관우가 참수되었다. 장비마저 살해되었다. 도원결의의 형제, 수십 년간 생사를 함께한 동반자의 죽음. 그 순간부터 유비의 모든 사고에 하나의 기준점이 박힌다. 관우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것이 앵커링 효과의 감정적 변형이다. 처음 설정된 기준점이 이후 모든 판단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 감정적 앵커는 숫자보다 훨씬 강력하다.

촉한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누가 봐도 위나라였다. 조운이 간언한다. “국적은 조조이지, 손권이 아닙니다.” 제갈량도 만류한다. 그러나 유비의 귀에는 복수에 가까운 말만 들어온다.

이릉에서 70리에 걸쳐 진영을 펼치고, 육손의 화공에 진영이 순차적으로 불타올랐다. 유비는 백제성으로 퇴각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장자가 경고한 그대로다. “슬픔과 즐거움은 덕을 어지럽히고, 기쁨과 노여움은 도를 어지럽힌다.” 유비에게 필요했던 것은 시간의 거리였다. 감정적 앵커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 출정을 6개월만 늦추었다 해도, 전략적 판단이 감정을 이길 여지가 생겼을 것이다. 중대한 결정 앞에서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멈추라는 신호다.

성찰: 어떤 감정에 맞을 내리고 있는가? 그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인가?

네 번째 합정. 관우 - 무적의 착각이 부른 과멸

한수가 범람해 위나라의 칠군이 수몰되고, 우금이 사로잡히고 방덕이 참수되었다. 수엄칠군. 천하가 진동하는 대승이었다. 그러나 한수의 범람은 자연현상이었고 우금의 패배는 주둔지 선정의 실수 때문이었다. 관우의 기여는 기회를 활용한 것이지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과신 편향은 성공의 원인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행운의 기여를 지운다.

손권의 혼인 제안에 “호녀를 견자에게 시집보내겠는가”라 모욕하여 적을 만들고, 무명의 육손을 알아보아 형주 방어병력까지 전선으로 돌린다. 여몽이 상선으로 위장한 전함을 이끌고 텅 빈 형주를 기습했고, 퇴로가 끊긴 관우는 최후를 맞는다.

노자는 경고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돌보이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공을 이루지 못하며, 스스로 뽐내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관우의 모습 그대로다.



관우에게 필요했던 질문이 있다. “나의 성공에서 행운의 비율은 얼마인가?” 그리고 “적이 나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을 던졌더라면, 자신의 과신이 바로 그 약점임을 인식했을 수도 있다. 승리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이다.

성찰: 나의 성공에서 행운과 환경이 기여한 비율은 얼마인가?

전환점. 제갈량의 설전 - 같은 사실, 다른 틀

다섯 번째 장면은 앞의 빛과 결이 다르다. 편향에 빠진 이야기가 아니라, 편향의 구조를 꿰뚫어 역이용한 이야기다.

적벽 직전, 조조의 80만 대군 앞에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이 고작 5만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 동일한 사실을 완전히 다른 틀에 담는다. 항복과에게는 항복을 안전한 선택에서 치욕적 굴복으로 바꿔놓고, 손권에게는 항복이 안전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이라고 재구성한다. 그 다음 기회의 틀로 전환한다. 적은 수전에 약하고 질병이 돌 것이라고.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이것이 프레임링 효과다.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두 배 민감하다.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사실이 놓인 틀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역사가 뒤집어졌다.

마키아벨리는 간파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지만, 실제로 어떤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프레임링은 강력한 설득 도구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프레임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컨설턴트의 보고서, 경쟁사의 프레젠테이션, 언론의 헤드라인. 누군가는 항상 틀을 씌우고 있다.

성찰: 이 정보는 어떤 틀에 담겨 있는가? 같은 정보를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이는가?

다섯 장면을 관통하는 진실은 하나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의 확신이다. 마속은 박학했고, 조조는 전략적 천재였으며, 유비는 사람의 마음을 얻었고, 관우의 무예는 천하를 진동시켰다. 그러나 이들 모두 보이지 않는 적, 자기 자신의 인지 편향에게 패했다. 제갈량만이 그 구조를 꿰뚫어 역사를 돌렸다.

노자는 말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음이다.”

영웅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라 밝음이었다.

리더의 고독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다섯 개의 질문을 던질 수는 있다. 왜 이것이 옳다고 확신하는가. 데이터인가 기억인가. 어떤 감정에 맞을 내리고 있는가. 행운의 비율은 얼마인가. 누가 틀을 씌우고 있는가.

정답이 없는 시대를 건너는 법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역사상 뛰어난 리더들의 공통점은 정답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국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도가도 비상도 -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답은
영원한 정답이 아니다.
- 노자

김형철은 윤리학을 전공으로 한국 인문학 교육과 철학적 리더십 교육을 이끌어 온 학자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다수의 강의를 진행했고, 연세대학교 리더십센터 소장, 국제캠퍼스 교육원장, 리더십개발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철학회 사무총장과 사회윤리학회 회장을 맡아 철학과 윤리 분야의 학술 및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했다. '대한민국 최우수 인문학 강의 교수상', 'SERI CEO 최우수 강사상', '국내 최고의 강의 베스트 7' 선정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통해 명강사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AJU INSIDE



도시를 경험하는 호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경험

서울을 찾는 여행자들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명소를 빠르게 소비하는 관광에서 벗어나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도시의 리듬 속에 머무는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 홍익대학교 앞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이하 RYSE)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시를 경험하는 숙소'라는 새로운 역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Photo: Jo Jiyong

머무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한국 관광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5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89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의 1750만 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숫자 이상의 변화는 관광객의 도시 경험 방식에서 나타난다. 외국인들에게 서울은 단순 경유지가 아닌 일정 기간 머무르며 '경험하고 싶은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짧은 일정 속에서 주요 명소를 빠르게 소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네를 걷고 문화를 체험하며 도시의 일상을 경험하는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오픈한 RYSE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숙소의 기능을 다시 설계해 온 사례다. RYSE의 전략은 규모를 키우는 확장보다는 여행자의 목적과 체류 방식에 맞춰 공간의 역할을 세분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모든 투숙객에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별 성향에 맞춘 각기 다른 체류 방식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 장기 투숙객, 크리에이티브 목적의 방문자 등 다양한 여행자의 필요를 고려해 공간의 쓰임을 유연하게 기획했다. 이는 단순히 객실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제안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접근은 효율성 중심의 호텔 운영 방식과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둔다. 모든 기능을 표준화하기보다 흥대라는 지역의 리듬과 투숙객의 사용 방식을 반영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RYSE의 변화가 전략으로 읽히는 이유다.

식음(F&B) 역시 RYSE 운영 전략의 중요한 축이다. RYSE는 메뉴를 고정된 형식으로 유지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며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처음에는 글로벌 컬처 중심의 미국식 가정식을 중심으로 구성했지만, 최근에는 K-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한식 메뉴를 강화하며 다양한 문화권의 투숙객이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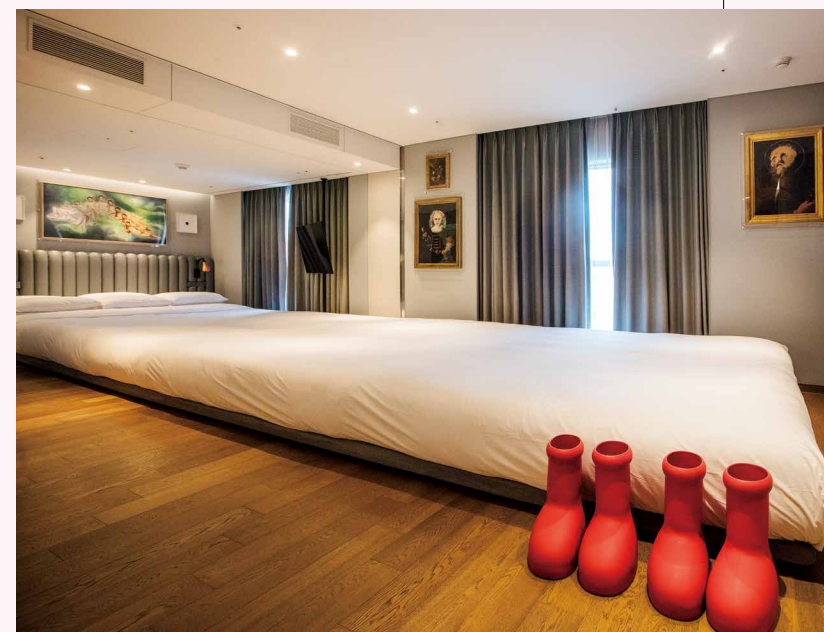
이는 단순한 메뉴 변경이 아니라 체류 경험을 설계하는 것과 같다.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가 머무는 호텔에서 음식은 여행을 기억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머무는 방식이 호텔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

RYSE의 성과는 단기적인 수치보다 방향에서 읽힌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외부 환경 속에서 호텔은 즉각적인 확장이나 트렌드 모방 대신 중장기적인 운영 전략을 선택했다. 객실과 F&B, 공용 공간 전반에 걸친 변화는 모두 여행자가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도시 인식의 변화, 지역 상권의 재편은 호텔 산업을 포함한 도시 서비스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이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갖추었는지가 아니라 여행자가 도시를 어떻게 경험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다.

흥대는 공연과 상점, 골목과 카페가 뒤섞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동네다. 이곳에서 여행자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잠시 도시의 리듬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호텔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공간이 된다. 흥대 거리 한복판에 자리한 RYSE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호텔이 도시와 만나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여행의 기억은 결국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보낸 시간의 방식으로 남기 때문이다.

RYSE의 아티스트 협업 콘셉트 객실, 아티스트 스위트 예술 작품과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 숙박 공간을 하나의 문화 경험으로 확장한다.



RYSE, 머무는 경험을 설계하다

함중우,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총지배인

변화가 빠른 국내 호텔 산업 속에서도 RYSE는 '원팀One Team' 문화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최근 5년간 매출과 경상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했고, ESG 실천과 고객 경험, 조직 문화까지 균형 있게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성과는 2025년 아주그룹 '올해의 사업장' 선정으로 이어졌다.



2018년 <모노클Monocle>, 2023년 영국 <더 타임즈The Times>, 2025년 <콘데나스트 트래블러Condé Nast Traveller>에서 서울 베스트 호텔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RYSE가 글로벌 매체의 주목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RYSE가 처음부터 '라이프스타일 호텔'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텔의 라이프스타일을 럭셔리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훨씬 다양합니다. RYSE는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객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 아니라, 파트너십과 큐레이션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기를 지향했습니다. 갤러리, 브랜드, 레스토랑 등 호텔 안에 들어오는 파트너들도 단순한 임대 관계가 아니라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는 협업 관계로 생각합니다. 전시 역시 작품을 가져와 걸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아티스트와의 관계와 스토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픈 당시 RYSE가 정의했던 '홍대 앞 호텔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나요?

RYSE의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리트 컬처Street Culture'입니다. 홍대가 오랫동안 쌓아온 예술과 음악, 독립적인 문화의 감각을 호텔 공간 안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유스풀Youthful'한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음은 단순히 젊은 고객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감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RYSE는 그런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셋째는 지역과의 연결성입니다. 홍대라는 지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호텔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다른 호텔들과 RYSE를 구분 짓는 명확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 차이가 서비스 방식과 큐레이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커리어로 봐도 RYSE는 분명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파크아얏트와 웨라톤 등 전통적인 럭셔리 호텔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는 서비스 방식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RYSE에서는 고객마다 다른 성향과 경험을 존중하려 합니다. 직원들도 자신의 개성을 살려 고객과 보다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같은 요소는 언젠가 다른 호텔들이 따라 할 수 있지만, 이런 파트너십과 큐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지는 서비스 문화는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객실을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나요?

객실을 단순히 등급으로 나누기보다는 경험의 성격에 따라 구성했습니다. 크리에이터 룸, 디렉터 룸, 프로듀서 스위트 같은 이름을 사용했고, 특히 다섯 개의 아티스트 스위트는 각각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해 디자인했습니다.

객실 안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한국 사탕이나 전통 놀이인 공기, 소맥 세트 같은 요소들을 객실 경험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해외 고객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장치가 됩니다. 우리는 호텔이 친근하고 경험 중심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RYSE에서 F&B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음식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식 가정식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코리안 퓨전 메뉴로 확장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통입니다. 서비스 직원뿐 아니라 셰프들도 고객에게 직접 메뉴를 설명하며 경험을 공유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경험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RYSE는 홍대라는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단순히 홍대 앞에 있는 호텔이 아니라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 바들과 함께하는 '마포 프로젝트' 같은 행사도 진행했고, 공간이 부족한 지역 업장들과 협업해 호텔 루프탑에서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대 지역의 숨은 맛집들과 함께 하는 푸드 페스티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호텔이 지역 문화와 연결되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지배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 무엇인가요?

RYSE는 '원팀'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정 부서에서만 아이디어를 만들지 않고, 모든 부서가 함께 의견을 내고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리더로서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보다 가까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RYSE에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호텔 서비스 전문가뿐 아니라 문화, 디자인, 콘텐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더 큰 시너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RYSE가 앞으로 어떤 호텔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RYSE가 특정 문화 하나에만 치우친 호텔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패션, 음악, 예술, 음식, 사람들 사이의 교류 등 다양한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RYSE'라는 브랜드를 궁금해하고, 공감하는 공간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에서도 라이프스타일 호텔이라는 카테고리를 이끄는 사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Share, Split, Sustain 나눔으로 확장되는 아주의 가치

나눔으로 확장되는
아주의 가치

오늘날 기업의 역할은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가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CSR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 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주 역시 구성원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이 속한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업 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CSR이 일회성 기부나 후원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프로그램,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는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아주 역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각 계열사는 사업 영역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아주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설립 20주년을 맞은 아주복지재단은 교육과 복지, 지역사회 지원을 중심으로 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며 그 범위를 확장해 왔다.

연말의 온기를 나누다

아주IB투자 × 아주복지재단

아주IB투자는 지난해 연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주 달콤한 다과 선물세트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연말 송년회를 대신해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봉사활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이어진 아주IB투자의 연말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아주IB투자는 기업 활동 속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연말에는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4년에는 겨울철 생필품으로 구성된 '겨울나기 키트'를 제작해 전달했으며, 2025년에는 연말의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한 다과 선물세트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아주IB투자 구성원 약 50명이 참여해 전통 과자와 제철 과일 등으로 구성된 다과 선물세트 100박스를 직접 제작했다. 완성된 선물세트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동대문구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됐다. 선물세트 제작 이후에는 구성원들이 여러 조로 나뉘어 지역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전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지역 이웃과 직접 교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1 | 2

1-2 아주IB투자는 지난해 연말 송년회 대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도시와 연결되는 나눔
RYSE x 아주복지재단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RYSE, Autograph Collection, 이하 'RYSE')은 아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아주좋은꿈터'를 찾아 'RYSE UP! 희망과 꿈도 UP!'이라는 이름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아주의 나눔 철학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RYSE의 지속 가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RYSE는 2018년 개관 이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마포구 거리 청소(플로깅), 노숙인 보호시설 '안나의 집' 급식 봉사, '우리 궁궐 지킴이' 활동 등 지역과 연결되는 봉사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번 활동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아주복지재단과 협력해 추진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RYSE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을 진행했다. 한 팀은 꿈터를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영어 동화책 읽기와 창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의 시간을 가졌고, 다른 팀은 생필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후원 물품 키트를 제작해 안암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가정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키트에는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아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다
아주복지재단 '찾아가는 꿈찾기-꿈리더십 클래스'

아주복지재단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꿈찾기-꿈리더십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진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최근 전 세계 15세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인 진로 진학이 나타났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청소년이 장래 희망이나 진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복지재단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꿈찾기' 사업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교육복지실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진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진로교육 연구와 강의를 이어온 전문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꿈리더십 클래스'는 총 15회기로 구성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문 강사가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진로 탐색 과정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자신의 가치관과 강점을 발견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 책임 리더십을 배우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시작된 이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매년 약 10~15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64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166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었다.

“수업을 하면서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하고 싶은 꿈에 대해
이유와 목표도 찾게 되어
의미있는 수업이었어요.”

김*연 학생

1 | 2 | 3

- 1-2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과 아주복지재단 '아주좋은꿈터'가 함께 진행한 'RYSE UP! 희망과 꿈도 UP!' 봉사활동
- 3 아주복지재단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꿈찾기-꿈리더십 클래스'

생각하는 힘을 기르다
아주복지재단 아주좋은꿈터 '하브루타 독서토론'

아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아주좋은꿈터'에서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브루타 방식의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수업은 책을 읽고 관련 질문을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토론 과정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은 아주좋은꿈터 도서관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하브루타 마스터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가 진행하며,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하브루타 교육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3회 운영됐으며, 회당 약 10명 내외의 소규모 정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230명의 아동이 참여했으며, 소규모 토론 방식으로 운영되어 참여도와 집중도가 높고 재참여율 또한 높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광선 아주산업 레미콘사업본부장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수상

박광선 아주산업 레미콘사업본부 본부장이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견기업인의 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며, 본 행사에서는 매년 중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해 국내 대표적인 산업 공로 포상을 시상한다.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경제를 이끈 인물들이 무대에 올랐고, 그 가운데 박광선 본부장이 '현장의 장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광선 본부장은 1995년 아주산업 구로공장 영업팀으로 입사해 상암·광명사업소와 파일사업 본부장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레미콘사업본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30년 가까이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아주의 성장에 꾸준히 기여해온 '현장 전문가'로 믹서 부하 값에 기반한 슬럼프 예측 기술을 도입해 제품 품질과 현장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 결과 적기 납품 체계가 완성됐고, 다수의 건설사로부터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었다. 또한 건설자재 수급난에도 공공 주택 사업과 국가 기반 시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공급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이 외에도 현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자동화 도입에도 앞장섰다. 차량 자동세차 시스템을 비롯해, 송장 자동 이송 시스템, 골재 입고 관리 시스템 등 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으며, 운반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으로 ESG 경영 실천에 큰 힘을 보탤다.

박광선 본부장은 "30년 동안 함께 고생한 동료들의 노력과 회사의 믿음 덕분에 받게 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아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광선 아주IB투자 벤처투자부문 본부장, '2025 벤처창업 진흥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벤처투자 현장에서 25년 동안 유망 기업 발굴과 투자 생태계 확장에 힘쓴 양광선 아주IB투자 벤처투자부문 본부장이 '2025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 투자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정부 포상으로,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업과 인물에게 수여된다. 양광선 본부장은 약 25년간 벤처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유망 기업 발굴과 투자 공급, 기업 가치 제고(Value-up) 활동을 통해 국내 벤처 창업 투자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양 본부장은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반도체 대기업 R&D 연구소에서 약 5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아주IB투자에 합류해 벤처투자 업무를 수행해 왔다. 현재는 VC 투자 부문의 대표 펀드인 아주좋은벤처 펀드 1.0(1000억 원), 아주좋은벤처 펀드 2.0(2940억 원), 아주좋은벤처 펀드 3.0(2070억 원)의 대표

펀드매니저를 맡아 투자 전략과 펀드 운용을 이끌고 있다.

양 본부장은 벤처투자와 창업 생태계의 핵심은 자본이 아니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창업가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벤처기업과의 미팅 현장에서 살아 있는 에너지를 느끼며,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실험과 동기부여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수상 소감에서 양 본부장은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이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불확실성과 실패의 가능성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창업가들과, 그 여정을 함께 고민하고 믿어준 동료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와 창업의 본질은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며, 도전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의 성과가 생태계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비 오는 날에도 공사 가능한 콘크리트 기술 개발, 아주산업 특허 취득

아주산업이 두산건설과 공동 연구해 개발한 '강우 시 강도 유지 및 건조수축 저감형 혼화제를 포함하는 강우 타설용 콘크리트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빗물 혼입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고려해 시간당 3mm를 초과하는 강우 시 콘크리트 공사를 전면 금지하고, 3mm 이하의 강우 시에도 책임기술자의 승인 아래 공사를 진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기상 예보의 오차와 책임기술자의 보수적 판단으로 타설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공정 차질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곤 했다. 이로 인해 강우 취소를 고려한 레미콘 선주문과 출하 직전 취소가 반복되면서 건설사와 레미콘사 간 혼선과 신뢰 저하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주산업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두산건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시간당 6mm 강우 조건에서도 품질 저하 없이 타설이 가능한 콘크리트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해당 기술은 특수 화학혼화제를 적용해 콘크리트 구성 재료의 분리저항성을 높임으로써 빗물 혼입을 억제하고, 동시에 최적의 유동성을 확보해 타설 과정에서 안정적인 품질과 우수한 시공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인 시험기관의 성능 평가와 실제 건축물 슬라브 실물 부재를 활용한 목업 테스트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시험 결과 시간당 최대 6mm의 강우 조건에서도 콘크리트의 안정적인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주 철학 되새기며, 청남공원 녹지보호 활동

아주 임직원들은 식목일을 맞아 청남공원에서 녹지 보호 활동을 진행하며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임직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식목일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활동은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청남공원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아주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이날 청남빌딩에서 출발해 공원에 도착한 뒤, 창업주의 철학과 호를 따서 이름 붙여진 청남공원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공원 내 수목 식재와 잡초 제거 등 환경 정비 활동을 진행하고, 공원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팔각정 앞에는 홍매화와 철쭉 관목을 직접 심는 식목 활동도 진행됐는데, 임직원들은 나무를 심고 공원 환경을 정비하며 이곳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휴식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람된 시간이었다.

청남공원은 아주그룹 창업주 고 문태식 회장을 기리기 위해 아주그룹이 공원 부지와 조성 기금을 기부해 중랑구에서 건립한 공원이다. 아주는 임직원들이 청남공원을 직접 가꾸고 돌보는 활동을 통해 창업주의 정신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BIO Digest>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최우수상 수상

아주IB투자가 발행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온라인 매거진 <BIO Digest>가 2025년 12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온라인 제작물 부문 최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미디어·홍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 커뮤니케이션 시상식이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BIO Digest>는 2025년 5월 창간된 아주IB투자의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온라인 매거진이다. 아주IB투자가 축적해온 투자 경험과 산업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흐름과 최신 트렌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주IB투자 미국 법인 SOLASTA VENTURES의 투자 포트폴리오 소개를 비롯해 벤처 바이오 기업 대표 인터뷰와 주요 산업 관계자들의 기고문 등을 담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수상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캐피탈(VC)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주IB투자는 "앞으로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BIO Digest>를 국내 바이오 산업의 흐름을 면밀히 짚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길잡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아주컨티뉴엄과 RYSE가 고용노동부 주최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은 기업 구성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내 대표 워라밸 시상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83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수상 기업에는 공공조달 가격, 근로감독 및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시상에서 아주컨티뉴엄은 신뢰 기반의 자율·유연근무 문화와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 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돌봄, 건강, 개인 사정 등에 따라 구성원이 스스로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보다 신뢰'의 조직 문화를 구축해 왔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전 단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임산부 키트 제공, 난임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유·사산 휴가, 태아 검진 시간 보장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초기 급여 보전과 재택근무 활용 등을 통해 직원의 삶 전반을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 점이 우수기업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구성원 중심의 경영과 건강한 일터 문화를 위해 노력해 온 아주컨티뉴엄과 RYSE는 "앞으로도 직원의 삶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직 문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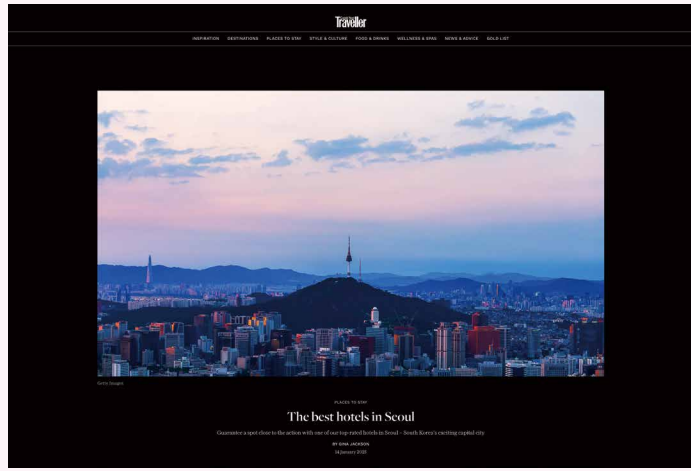
2026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후원

제21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eoul Spring Festival of Chamber Music, 이하 'SSF')가 오는 4월 21일부터 개최되는 가운데, 아주IB투자와 아주가 4월 24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리는 '헌정 음악회'를 후원한다.

SSF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서울의 문화예술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6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음악 축제다. 세계 최정상급 해외 연주자와 국내 차세대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해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클래식과 실내악의 깊이를 전하고, 클래식이 낯선 관객들에게는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해 왔다.

이번 제21회 SSF의 주제는 '모차르트와 영재들'이다. 총 82명의 국내외 음악가가 출연해 탄생 270주년을 맞은 모차르트의 다양한 작품을 재조명하고, 그와 함께 두각을 나타냈던 영재 작곡가들의 작품을 폭넓게 선보인다. 또한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깊이 있는 프랑스 레퍼토리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아주가 후원한 '헌정 음악회'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고 지난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윤상구 집행위원장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헌정 음악회'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통해 그의 삶과 발자취를 기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서울 최고의 호텔' 선정, 라이즈 호텔 글로벌 주목

라이즈 호텔이 세계적인 여행 전문 매거진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Condé Nast Traveller>가 선정한 '서울 최고의 호텔(The Best Hotels in Seoul)'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2025년 서울의 주요 호텔을 대상으로 디자인, 서비스, 위치, 가격 경쟁력, 지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울 최고의 호텔'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라이즈 호텔은 흥대 지역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호텔로 소개됐다.

라이즈 호텔이 위치한 흥대 지역의 예술·음악·스트리트 문화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호텔 공간과 콘텐츠에 반영한 점을 주요 특징으로 언급했다. 또한 산업적 감각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 그리고 '크리에이터', '에디터', '아티스트' 등 창작자 콘셉트로 구성된 객실 디자인이 호텔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소개됐다. 특히 흥대라는 지역의 창작 문화와 젊은 에너지를 호텔 콘텐츠와 공간 기획에 반영해 온 점에서 해외 여행객과 글로벌 미디어로부터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전 세계 여행 전문 에디터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호텔을 선정하는 글로벌 여행 매체로, 이번 선정은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에게 라이즈 호텔이 서울의 동시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호텔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조기 완판

아주가 시행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망우동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분양이 시작된 2025년 9월 당시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초기 완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뛰어난 입지와 높은 생활 편의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계약이 마감되었다.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7층, 지상 28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 254세대(84㎡ A~E형)와 오피스텔 189실(84㎡ OA·OB형) 등 총 443세대로 구성됐다. 지하철 7호선과 KTX,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예정)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을 갖춘 역세권 입지이며, 코스트코·홈플러스·CGV·중랑아트센터 등 다양한 생활·문화 인프라도 인접해 있다.

또한 아파트는 다양한 평면 구조와 유상 옵션을 통해 주거 특화를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고, 오피스텔은 기본 옵션을 제공해 합리적인 가성비를 갖춘 점이 특징이다.



2026 아주 캘린더·다이어리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을 맞아 건축가 유동룡(이타미 준)의 유화 작품으로 캘린더가 제작되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아주 구성원들의 일상과 업무를 함께할 2026년 아주 다이어리는 한 해의 시간을 계획하고 기록하는 도구인 만큼 실용성과 남다른 디자인을 함께 담아냈다.

캘린더는 예년과 달리 스프링을 없앤 책장형 캘린더로 제작되었는데, 책장을 넘기듯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낱자 확인용뿐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오브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심미성을 높였다. 매월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유동룡 건축가의 작품 13점을 만날 수 있는 점 역시 특징이다. 재일 한국인 건축가인 그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건축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수록된 작품들은 각 계절과 어울리는 색감으로 구성되어, 달력을 넘길 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다이어리는 한지의 특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친환경 소재를 표지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전통 한지 표지, 재생 가능한 용지 내지, 종이 소재 가름끈 등으로 구성된 ESG 아이템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담았다. 여기에 아주의 시작을 상징하는 콘크리트 컬러를 표지에 적용해 브랜드 정체성이 한결 돋보였다.

SPECIAL GIF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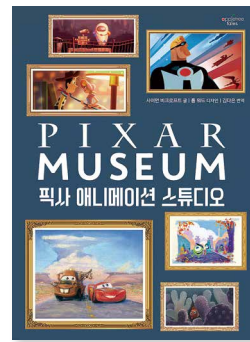
《미래로의 여행 A Trip to the Future》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늘 정원, 수상 도시, 친환경 비행기, 테라포밍 시대, 우주 엘리베이터 등 현재의 청소년이 곧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일상 구성요소를 구성하는 과학기술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 분야를 실제 미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 재미있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주며 변화하는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아주 좋은 날〉 2026년 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ajupr@aju.co.kr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독서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상상이 넘치는 세계를 탐험하도록 이끌곤 합니다. 다채로운 이미지로 상상력을 펼치게 하는 그림책,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 다가올 미래와 스타트업에 관한 애플트리테일즈의 도서를,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네 분을 선정해 선물로 드립니다.

3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전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책. <토이 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인크레더블>, <카>, <라따뚜이>, <월-E>, <업>, <인사이드 아웃>, <코코> 등등 픽사의 수많은 명작들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제1원칙인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픽사의 제작자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영화 속 픽셀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이야기의 일부여야 한다고 믿는다. 독창적인 예술성과 작품성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토리와 시네마의 행로를 바꾸어 놓은 픽사의 엄선된 아트웍, 애니메이션의 획기적인 뒷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4

《프레그런스, 자연의 향기》

영국 왕립식물원 큐가든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자연에서 얻은 향의 원료 100가지를 식물학적 정보와 함께 소개한다. 100가지 식물의 향을 자연과 역사, 문화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감각적인 식물 이미지를 보는 즐거움까지 전한다.



2



《지브리 스튜디오에선 무슨 일이?》

지브리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애니메이션 제작소 중 하나로 매혹적인 마법 같은 이야기와 살아 숨 쉬는 애니메이션으로 수십 년째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브리의 광팬을 자처하는 이들조차도 지브리 스튜디오의 숨겨진 이야기는 거의 알지 못한다. 《지브리 스튜디오에선 무슨 일이?》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전 작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제작 스토리를 담아 '진짜 지브리'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여유와 휴식이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바쁘게 일상을 보냈다면 그만큼의 휴식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카페에서 차 한잔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네 분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기피에서 필수로: 미래 산업의 핵심, 공학〉 기사를 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으로서 매우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예로부터 '대장장이'나 '공돌이'와 같은 비하적 표현 속에서 공학 분야 종사자들이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 공학의 중요성은 다시금 크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재로서 공학 인재의 양성과 배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인정받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기술 명장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공학도가 존중받고 과학기술의 가치가 올바르게 인정받는 사회 문화가 형성될 때 비로소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민우 님

〈아주 좋은 날〉 가을호는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깊이와 확장성을 더해 주는 호였습니다. 오아르미술관을 통해서 '역사의 능선'이 건축의 창이 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했고, 루이즈 부르주아의 자전적 예술 세계 속에서는 인간 내면에 잠재된 깊은 힘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발견을 의미하는 'Serendipity' 칼럼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작지만 소중한 우연과 깨달음을 포착하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뜻밖의 선물'들로 채워져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지식의 향연 속에서 저는 가을날의 충만한 지적 만족을 느꼈습니다. 사보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깨달았습니다. '아주 좋은 날'은 결국 세상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장정아 님